이달의 주요소식

소설가 김유정 삶 그림으로
먹거리+여행 '춘천 로컬푸드트립'
봄내 산책로 이음길 _ 배움길

봄내

춘천시 시정소식지

10월

OCTOBER 2022



지난 가을 공지천

한눈에 보는 춘천시

2022년 8월 말 기준

인구	가구	출생아	65세 이상	자동차
290,403명	133,109세대	144명	54,961명	146,243대
+338	+499	(2022년 누적 1,098명)	+374	(전기자동차 2,848대 포함)
				+403(+100)

봄내 홈페이지 퀴즈에 도전하세요!

bomnae.chuncheon.go.kr

봄내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를 위해 봄내 퀴즈는 봄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됩니다.
10월 4일(화) 홈페이지 팝업창을 확인하세요.
정답자 중 100명을 추첨하여 모바일 춘천사랑상품권(5,000원)을 드립니다.

응모 기간 10. 4.(화) ~ 20.(목) **정답 및 당첨자 발표** 10. 25.(화)

2022 춘천 반려동물 동행 페스티벌



일시 10. 1.(토) ~ 2.(일) **장소** 송암스포츠타운 보조경기장
내용 기네스북 도전, 반려동물산업포럼, 토크콘서트 등
문의 인스타그램 '춘천펫스타' @petsta_ch / 이메일 cdf2022@naver.com

찾아가는 반려견 놀이터(댕댕그라운드 - 행동교정)

일시 10. 8.(토) 10:00 ~ 19:00 / 10. 15.(토) 10:00 ~ 19:00 **장소** 석사천
문의 시 반려동물협동조합 ☎010-2741-2028 / 시 반려동물산업과 ☎245-5090

2022 반려견 놀이터 토요프로그램 운영

일시 10월 매주 토 12:30 ~ 16:00 **장소** 동물보호센터 반려견 놀이터(신북읍 영서로 3282)
내용 행동 교정, 위생 미용(무료) **문의** 시 반려동물산업과 ☎245-5090

반려가족 산책 프로그램(마실중Dog)

일시 10. 8.(토) 13:00 ~ 15:00 **장소** 석사천 / 10. 15.(토) 13:00 ~ 15:00 **장소** 공지천 푸른쉼터
내용 버스킹 공연, 반려견 올림픽, 체험부스 등 **문의** ㈜강원일보 ☎255-0920 / 시 반려동물산업과 ☎245-5978



표지 설명 지난 가을 공지천 **사진** 명예시민사진기자 **하성재**

차 례

봄내

2022년 10월



만나다

04 춘천은 지금 김유정 생애 특별전
06 로컬푸드트립
08 궁금해요, 춘천바이오산업 ②
10 시정뉴스 '춘천역세권 69만㎡ 개발 속도' 외 9건

즐기다

14 봄내 산책로 이음길 1 배움길
18 봄내문화생활
28 봄내 한 컷
29 이달의 책

꿈꾸다

30 춘천 안심먹거리 물안골농장
32 지구별 이야기 새삶스런 벤치
34 봄내기업 월드케미칼
36 문화지도 청소년을 위한 맡겨놓은 카페
38 도란도란 춘천

품다

42 최돈선의 골목이야기 ㉞ 춘천의 가을밤
46 최성각의 녹색이야기 ⑩ 대체로 가을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48 하창수의 사람이야기 ⑩ 공연예술가 용선중
50 허준구의 춘천백경 ㉒ 석파령

나누다

52 심리툰 봄마음 내마음 제10화 어떤 불안
53 행복나눔 후원릴레이 71호
54 의회소식 제320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개최
58 봄내골소식
62 알림마당
70 삼행시 / 독자와 함께

봄내 | 381호(2022년 10월호)/**비매품** **창간일** | 1993년 1월 25일 **발행일** | 2022년 10월 1일 **발행인** | 춘천시 부시장
기획 | 춘천시 시민소통담당관실 **인쇄** | 강원일보 **봄내 편집실** | ☎033-250-3229 | **홈페이지** bomnae.chuncheon.go.kr



김유정문학촌 개관 20주년 기념 특별전

소설가 김유정의 삶 그림으로 만나다

김유정문학촌이 개관 20주년을 맞아 김유정의 생애를 담은 8폭의 대작 '유정고도裕貞孤道'를 제작하고 김유정과 관련 있는 도시인 하남, 서울, 춘천을 돌며 순회 전시를 하고 있다. 작품 제작은 신대엽 작가가 맡았다. 가을이면 더 아름다운 김유정문학촌을 방문해 흔히 만날 수 없는 대작들을 관람해 보면 어떨까.

글 **김선순** · 사진 **김유정문학촌**

「봄·봄」, 「동백꽃」 등 한국 근대 명작 단편 소설을 여러 편 남긴 김유정을 기리기 위해 2022년 김유정 생가터를 중심으로 조성된 김유정문학촌이 개관 20주년을 맞았다.

김유정의 생가는 김유정의 친척과 제자들의 고증에 따라 복원됐는데 전형적인 'ㅁ'자 한옥으로 언제든 찾아가면 마음의 고향 같은 따뜻함을 선사한다. 초가로 꾸며진 문학촌은 가을이면 그 분위기가 한층 더 고조되는데 올해는 개관 20주년을 맞아 더 다양한 볼거리로 관람객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김유정과 교류했던 17인의 집단초상화 '김유정의 사람들'

김유정문학촌은 지난 3월 29일 김유정 85주기 추모제를 열면서 신대엽 작가가 1년여간 준비한 '김유정의 사람들'을 공개했었다. '김유정의 사람들'은 김유정과 교류했던 1930년대 문화예술계 인사 17인의 초상이 담긴 집단초상화다.

가로 2.4m, 세로 2m에 달하는 대작에는 김유정과 절친했던 천재 시인 이상, 한국언론과 잡지의 선구자이자 김유정을 문단에 데뷔시킨 차상찬, 김유정에게 소설 쓰기를 권유한 안회남, 무형문화재 판소리 명창 박녹주 등이 등장한다.

사진 자료도 드문 근대문화예술 인사들을 당대 모습 그대로 되살렸다는 점에서 한국 문단 및 문화예술계에 큰 감동을 선사한 작품이다.

김유정의 외로운 삶 그린 '유정고도'

김유정문학촌은 8월 22일 서면에 있는 신대엽 작가의 갤러리 '이은당'에서 김유정이 살아낸 스물아홉 해의 외롭고 고단한 삶을 8개의 화폭에 담아낸 대작 '유정고도'를 공개했다.

'유정고도'는 김유정의 탄생, 유년기에 겪은 상실과 상처, 소설가로서의 삶, 하남에서의 죽음을 연대기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작품이다.

춘천에서 태어난 김유정은 서울에서 활동하다 다시 춘천으로 내려왔고 생의 마지막 나날을 하남에서 보냈다. 이



'유정고도裕貞孤道' 신대엽 作



'김유정의 사람들' 신대엽 作

에 김유정문학촌은 '김유정 생애 특별전'을 춘천뿐 아니라 하남과 서울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하남문화재단과 서울 '이상의 집'에서 순회 전시를 열었다. 순회 전시를 마친 작품들은 10월에 김유정기념전시관에 안착해 춘천시민의 품에 안기게 된다.

이순원 김유정문학촌장은 "김유정 선생님은 춘천을 대표하는 작가를 넘어 전 국민에게 사랑받는 작가인 만큼 이번 전시가 문학촌과 춘천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김유정 기념전시관은 리모델링 공사 중인데 공사가 마무리되는 10월 말경부터 두 작품을 모두 만나볼 수 있다. 사실적인 화법으로 따뜻하게 춘천과 춘천사람들을 그려 온 신대엽 작가의 대작을 많은 시민이 만나볼 수 있기 바란다.



#1. 소양 쓰고 Eat Go!

효자동의 작은 카페이자 복합문화공간. 커피만 로스팅한다는 편견을 깨고, 춘천에서 재배된 팥을 로스팅해 음료를 만든다. 계절이나 개인 취향에 맞는 주제를 정하고 시를 써 본다. 한 글자 한 글자 꾹꾹 눌러 담은 시구에 마음 한 자락이 실린다. 나에 대해, 춘천에 대해 새로운 것을 알게 되는 시간이다. **〈소양하다〉**

#2. 자전거 타고 Eat Go!

시원한 바람을 가르고 자전거 페달을 밟는다. 삼천동 춘천지역먹거리직매장에 들러 춘천의 로컬푸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춘천 먹거리를 구경하거나 구입한다. 공지천 자전거길을 통해 도착한 중도. 국내 최대 청동기 마을 고인돌 유적지를 따라 하중도 생태공원으로 향한다. 춘천에서 난 식재료를 이용한 도시락을 맛본다. **〈차원〉**





#3. 취하고 Eat Go!

춘천쌀을 활용한 로컬양조장에서 짜릿한 한잔! 전통주 역사와 전통주 제조 방법을 배운다. 이어 이곳에서 빚은 전통주를 맛본다. 전통주와 어울리는 안주는 뭐가 있을까. 춘천에서 나온 제철 농산물로 만든 안주와는 어떤 조화를 이룰까, 직접 체험해본다. 한 잔 술에 열 가지 이야기가 흘러넘친다. **〈호수〉**

#4. 카누 타고 Eat Go!

소양강변에서 안전하게 카누 타는 법을 배운다. 직접 카누를 타고 소양강 일대를 노닐며 민물가마우지, 수달, 잉어, 송어와 같은 춘천 생태계를 탐방하고 춘천의 역사와 지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재미섬으로 이동, 장작 쪼개기와 모닥불 피우기 등 생존기술을 배우고 삼겹살과 쌈채소 등 춘천산 먹거리로 캠핑 체험을 한다. **〈카누아〉**





제철 먹거리와 호수의 만남

여행이 맛있는 춘천

글 **안선희** · 사진 **로컬여행랩 재미야**

식재료 결합 여행 프로그램 운영

춘천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로컬여행랩 재미야가 춘천의 속살을 맛볼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꾸렸다. 지역에 기반을 둔 자전거 커뮤니티 카페 '차원', 글쓰기 복합문화공간 '소양하다', 전통 양조장 '호수', 카누클럽 '카누아'가 함께 모여 지역 식재료와 결합된 여행 프로그램 '춘천 호미 EATrip'을 만든 것. 여행 프로그램에 어울리는 식재료를 찾아 연결해준 곳이 춘천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재미야다.

일정은 짧지만 플라스틱 없는 여행, 탄소중립 여행, 로컬푸드 여행 등 주제는 확실하다. 여행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4개 업체는 서로를 '호미씨'라고 부른다. '호미'는 농사의 기본농기구 호미에서 따 왔지만, 좋아하는 취미 등의 의미도 담고 있다. '춘천 호미 EATrip'은 호미씨들이 여행 큐레이터로 참여, 춘천의 먹거리를 맛보는 것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를 체험해보면서 여행자들을 지역주민이나 생산자, 판매자까지 연결해 서로를 이롭게 하는 구조를 만들려고 한다.

지역 먹거리에 대한 관심 키워

이 여행의 큐레이터가 된 호미씨는 모두 지역 먹거리 덕에 여행 프로그램이 더 풍요로워졌다고 말한다. 차원 박선우 대표는 "자전거뿐 아니라 식도락이 중요한 여행 포인트가 됐어요. 특히 농작물을 키우는 사람들과 이야기에 관심이 더 많아졌어요"라고 말했고, 소양하다 윤한 대표는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 장벽이 높은 편이었는데 먹거리나 맛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글쓰기를 하니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는 모습을 보였어요"라고 설명했다.

피크닉 도시락을 만든 차원의 이채현 매니저는 "이번 여행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로컬푸드가 왜 좋은지, 왜 먹어야 하는지 알게 됐어요. 저처럼 평범한 사람들도 이 여행 프로그램을 통해 로컬푸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됐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했다.

이 여행프로그램을 기획한 재미야의 송미 대표는 "리조트나 유명 관광지를 찾는 여행객들은 지역 상권이나 지역민을 만나는 자리가 점점 멀어져요. 이 여행은 그 거리를 좁히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라며 "내년에는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역 음식을 연결하고 싶어요"라고 밝혔다.

춘천 호미 EATrip은 내년 본격적으로 운영되기에 앞서 사전예약제(호수)나 비정기적 시즌제(차원, 카누아)로 운영된다. 소양하다는 매달 셋째 주 목요일 오후 시간에 '소양 쓰고 Eat go'를 운영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진단·예방·치료까지 춘천이 전세계 유일한 도시"

글 싣는 순서 ① 춘천바이오산업의 역사와 미래 ② **궁금해요, 춘천바이오산업** ③ 춘천 바이오기업 소개

Q. 요즘 들어 춘천 바이오산업이라는 말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이 무엇을 하고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접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에 대해 알려주세요.

A. 재단법인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은 2003년 1월 24일 춘천 바이오산업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춘천시가 산업부로부터 인가받아 출자하여 만든 바이오산업 전문 육성 기관입니다.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의 역할이라고 쉽게 표현하자면, 바이오기업 성장에 필요한 의식주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활동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대여하고, 기업들이 먹고살 수 있도록 인력 양성, 연구, 생산, 마케팅 및 사업 등의 종합적인 먹거리를 제공하고 마지막으로 기업들이 외부의 눈에 띄어 잘 보일 수 있도록 글로벌 진출, 홍보, 투자 매칭, 기업 상장(IPO)이라는 옷가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24일에는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이 20번째 생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간 도전한 20년이, 춘천시민 여러분과 함께 성장할 200년이 될 수 있도록 미래 바이오산업을 선도하는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의 규모와 입주 기업 등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A. 후평동 소양강변길을 따라 약 1만4,079평 부지에 7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현재 5개의 동이 운영되고 있으며, 6동은 2022년 말에 7동은 2024년에 완공돼 더 많은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50개 기업이 진흥원에 입주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뮨메드, 유바이오로직스, 에이프릴바이오 등이 있습니다. 바디텍메드, 애드바이오텍, 한국코러스 등은 이곳에서 성장했으며 지금은 거두농공단지에 사옥을 지어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Q. 코로나19 이후 뉴스에 바이러스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균과 다른 것인가요. 다르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A. 보통 우리가 질병에 걸리면 '세균 혹은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와서'라는 말을 흔하게 들었을 텐데요. 그래서 세균과 바이러스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균과 바이러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스스로 살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균은 스스로 에너지와 단백질을 만들 수 있어 다른 생물체에 기생하지 않아도 어느 환경에서나 살 수 있는 반면, 바이러스는 스스로 생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나 동물부터 미생물까지 살아 있는 모든 생물 세포에 기생하여 그 세포를 통해 자신을 무수히 복제해 증식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정확하진 않지만, 박쥐들에게서 시작한 바이러스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인간의 세포까지 침투해 자기 복제와 수많은 변형을 통해 지금 같은 코로나19 유행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정농특산물산업화지원센터
친환경 바이오농업 분야 아파트형 공장

바이오벤처공장
국내 최초 바이오 전용 아파트형 공장

특성화연구센터
바이오R&D 보육시설

제2바이오벤처지원센터
생물의약소재 연구지원시설

제1바이오벤처지원센터
국내 최초 바이오벤처기업 집적시설

Q. 춘천에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만들고 있다는 기사를 접했는데요, 치료제와 백신은 어떻게 다른가요.

A. 백신과 치료제는 개발 방법부터 병에 대한 접근방식이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백신은 병을 일으키는 병원체가 우리 몸을 감염시키기 전에 미리 몸속에 병원체나 병원체의 구성 성분 또는 독소 등을 주입해 항체를 만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항체가 만들어지면 병을 일으키는 감염원과 잘 싸울 수 있게 만들어 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치료제는 우리가 병원체에 감염되고 나서 발생하는 증상을 완화하고, 빨리 그 감염원에서 회복시키도록 돕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Q. 춘천에서 백신과 치료제를 만들고 있다는데 언제쯤이면 우리가 접할 수 있을까요.

A. 2020년 1월 우리나라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고 1년 뒤, 2021년 1월 춘천시는 코로나19 진단, 예방, 치료 전주기를 대응할 수 있는 전 세계 유일 도시라고 발표했습니다. 진단은 이미 8개 기업에서 약 50개 제품을 출시하여 세계 곳곳으로 수출, K-방역 위상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백신은 유바이오로직스에서 국내 두 번째로 임상 3상 허가를 받아 분주하게 백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필리핀 등에서 임상 3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해외 임상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3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임상 3상 결과가 지금처럼 잘 나온다면 아마도 내년 초에는 강원도에서 개발한 백신을 직접 접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치료제는 아직까지 국내 임상 3상을 허가받은 업체가 없는 가운데, 이뮨메드가 인도네시아에서 해외 임상 3상을 허가받아 최종 백신 개발을 향해 다다르고 있습니다. 최근 동물 효과 검증에서 치료제로 임상에 투약한 렘데시비르에 비해 더 낮은 염증 수치가 나와 그 효과성을 입증했습니다. 해외 임상 3상 결과가 잘 나온다면 비교적 빠른 시간에 국내 임상 3상을 시작, 국내에서 가장 빠르게 강원도 업체의 치료제가 상용화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료 제공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함께 20주년 기념
C3F
함께 도전할 20년, 함께 성장할 200년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춘천역세권 69만㎡ 개발 속도…이르면 2027년 착공

근화동 499-1번지 일대 '공공주도 전국 1호'
R&D 연구시설·복합환승센터 등 구상
춘천시·강원도 등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춘천역세권 개발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춘천역세권 개발사업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전국 1호 역세권 개발 사업인 만큼 더욱 주목받고 있다.

춘천시는 8월 31일 강원도청 본관 2층 소회의실에서 강원도, 국가철도공단과 함께 춘천역세권 개발 관계기관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했다.

공공주도의 전국 1호 역세권법에 의한 사업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마련하게 됐다.

협약에 따라 시는 각종 인·허가에 관한 사항, 공유지개발 등의 사업에 참여하고, 도는 실무협의체 운영 총괄, 역세권개발구역 지정 등 행정지원을 한다.

또 국가철도공단은 KDI 예비타당성 검토와 철도부지 개발 등 사업을 시행한다. 근화동 499-1번지 일대에 추진하는 춘천역세권 개발사업은 하수처리장 이전 부지와 춘천역 철도 부지를 포함한 약 69만㎡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사업은 2022년부터 2030년까지며, R&D 연구시설과 복합환승센터, 주거시설, 상업시설, 체육시설 등을 구상 중이며 이르면 2027년 사업을 착공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개발계획 및 사업 규모 등은 국가철도공단에서 시행 중인 춘천역세권 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춘천역을 중심으로 춘천~속초 간 고속화철도 사업은 물론 향후 GTX-B 노선 연장 추진과 연계한 시민 편의 증진 도시교통망을 확충할 것"이라며 "주거·상업·업무시설과 함께 R&D 연구시설 등 첨단 지식산업도시를 지원하는 복합기능의 미래형 거점공간을 구축하겠다"라고 했다.

도시계획과 ☎250-4975

민선 8기 첫 '조직개편안' 상임위 통과

부서 신설·유사 업무부서 통합 등 업무 효율화

민선 8기 첫 조직개편안이 제320회 춘천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민선 8기 시정 비전과 7대 목표 및 목표별 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민선 8기 조직개편안은 7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다. 이 기간 접수된 27개 단체, 시민 및 부서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확정하고 제320회 춘천시의회에 상정했다.

부서 신설과 유사 업무부서 통합, 산발적인 TF팀을 관련 부서로 흡수하고, 업무 성격이 상호 유사한 부서를 동일 국 내 구성, 국·과 명칭을 시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명칭으로 변경하는 데 중점을 뒀다.

5개국은 기존 기획행정국, 경제재정국, 교통환경국, 복지국, 문화도시국에서 기획행정국, 경제진흥국, 문화환경국, 복지국, 도시건설국으로 바뀐다.

이어 첨단지식산업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경제정책과, 투자유치과, 기업지원과로, 고품격 문화관광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문화예술과, 관광정책과, 관광개발과로 개편한다. 또 최고의 교육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교육도시과와 산학협력과가 신설된다.

세정과, 징수과는 기획행정국으로, 교통과, 토지정보과는 도시건설국으로, 반려동물산업과는 농업기술센터로 이동한다.

조직개편안은 춘천시의회 본회의 심의 의결 후 9월 말 공포·시행되며 후속 인사를 단행한다.

행정지원과 ☎250-3850

하반기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

상반기 111대 이어 95대 대상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이 상반기 111대 이뤄진 데 이어 하반기에도 95대가 지원됐다.

장치 가격은 차량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장치 가격 중 자기부담금 10~12.5%를 제외한 약 250만원에서 580만원이 지원된다. 유지관리비는 차량에 상관없이 46만2,000원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춘천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다.

선정기준은 1순위 생계형 차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2순위 영업용 차량, 3순위 제작연월일 최근 순이다.

기후에너지과 ☎250-4333

출입구 자동문·경사로 설치 지원한다

음식점 등 소규모 민간시설 대상…장애인 이동권 보장



춘천시가 2023년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사업장을 모집했다. 장애인 이동을 위한 경사로 등 편의시설 확대를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경사로, 출입구 폭 확보가 가능한 시설로, 법령상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학원, 운동시설 등 소규모 민간시설이었으며 총 7곳이 신청했고 6곳이 선정됐다. 지원범위는 경사로, 출입구 자동문, 점자블록 등 필수 편의시설 설치며, 지원규모는 1개소당 최대 400만원이다.

장애인복지과 ☎250-4326

'반려동물 전국사진공모전' 김택수·윤슬기 씨 금상

카메라 · 핸드폰 197점 응모…10월 1일 시상식





춘천 반려동물 전국사진공모전 시상식이 10월 1일 열린다.

춘천시는 지난 4월 1일부터 8월 26일까지 2022 춘천 반려동물 전국사진공모전을 진행했다. 공모전 결과 카메라 부문 141점, 핸드폰 부문 46점 등 총 197점이 응모됐다.

심사 결과, 카메라 부문은 김택수(울산) 씨의 '반려견과 함께'(금상·왼쪽 사진)를 비롯해 총 7점이 입상했다.

핸드폰 부문의 경우 윤슬기(춘천) 씨의 '행복한 동행'(금상·오른쪽 사진) 외 4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카메라 부문은 금상 1점(200만원), 은상 1점(100만원), 동상 2점(각 50만원), 가작 3점(각 20만원), 입선 50점(각 10만원)을 시상한다. 핸드폰 부문은 금상 1점(50만원), 은상 1점(20만원), 동상 3점(각 10만원), 입선 30점(각 5만원)이다. 시상식은 송암스포츠타운 보조경기장(페스티벌 개막식)에서 열린다.

반려동물산업과 ☎245-5978

물에 잠겼던 차량 불법유통 막는다

소비자 피해방지 대책 마련

춘천시가 침수차량 불법유통 사전 차단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최근 집중 폭우로 인한 다량의 침수차량이 발생, 침수차량의 불법유통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침수차량 불법유통 근절 공문을 자동차 매매업체 등에 발송하고 현장 지도할 방침이다. 침수차량 거짓 고지 및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한다.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관에서도 차량을 철저히 점검해 침수에 관한 사항을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정확히 기재하는 등 행정과 관련 업체의 유기적 대응과 협조로 소비자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로 했다.

생활교통과 ☎250-3256

청년이 직접 만든 춘천청년축제 '화제'

9월 16~18일 제1회 춘천청년축제 개최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약사천 수변공원 일대에서 청년이 직접 기획하고 총괄하는 축제가 펼쳐졌다.

법정 기념일인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을 맞아 마련된 축제다. 이를 통해 청년문화가 더욱 발전하고 청년이 행복한 도시가 구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축제는 전야제와 청년의 날 기념식, 청년 드림콘서트, 청년 버스킹 문화제, 청년 고민상담소, 청년홍보관으로 구성됐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이 행복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경제과 ☎250-329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 하세요

내년 8월 21일까지…19~34세 무주택 청년 대상

춘천시가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신청기간은 2023년 8월 21일까지며, 대상자격은 복지로, 마이홈 포털 홈페이지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자가진단이 가능하다.

신청은 청년 본인이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만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독립가구 1억 700만원 이하 및 원가구 3억 8,0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청년 본인이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 미혼부(모)인 경우, 만 30세 미만이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인 경우에는 청년독립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 고려한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월 최대 20만원 범위 내 실 임차료를 매월 25일마다 지급한다.

지원금은 최대 12개월(회) 동안 지급될 예정이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한다.

제출 서류 및 자세한 문의는 춘천시 건축과 주거복지팀 또는 청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건축과 ☎250-4408

노후·위험시설에 IoT 장비 설치한다

국비 6억원 확보…교량, 재래시장 안전관리

춘천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디지털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고보조금 6억을 확보했다.

이는 노후 위험시설에 IoT(사물인터넷:여러 사물에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되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주고받는 기술) 장비 설치를 통한 시설물 안전 관련 자료 수집, 실시간 모니터링 및 안전점검 지원 등의 사업이다.

시는 국고보조금 6억원에 시비 6억원을 더해 노후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시설물을 대상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교량, 전통시장 등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중 노후·위험시설과 재난 발생 시 피해가 큰 시설이 우선 구축 대상이다.

안전총괄담당관 ☎250-3737

"쥐를 잡자" 석사동 일대 집중 방역

춘천시보건소, 민원 제기에 10월까지 방제

춘천시보건소가 석사동 일대에서 쥐 잡기 대작전을 펼친다.

시보건소에 따르면 석사동은 그동안 스무숲 사거리와 먹자골목 주변 쓰레기 집하장을 중심으로 녹지대에 여러 차례 쥐 서식처로 보이는 쥐구멍 등이 다수 발견돼 주변 시민이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시보건소는 오는 9~10월 석사동 쥐 출몰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방역을 시행한다. 그동안 주민들이 조치한 방역으로는 한계가 있어, 전문업체와 협력해 집중 방제 조치를 하기로 했다.

방역전문업체는 민원지역의 쥐 굴과 은신처를 조사해 현장 환경에 맞는 조제 약제를 이용해 방역을 할 방침이다. 집중 방역 후에도 정기적 방역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보건소 관계자는 "쥐가 감염병의 매개가 되기에 철저한 방역을 실시하여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건운영과 ☎250-4595

대학교·박물관·도서관 품은 '배움길'

신성한 생명력을 품은 춘천은 '가을도 봄'이라는 축복의 땅이다. 예부터 살기 좋은 고을로 꼽혔던 춘천은 근래 가장 살고 싶은 도시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곳에 또 하나 걷고 싶은 길이 열렸다. 춘천을 아우르는 둘레길이다.
어느 날 문득 '춘천의 산책로를 잇는다면 좋은 길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길을 나섰고 드디어 춘천을 한 바퀴 돌 수 있는 멋진 길을 만났다. 바로 봄산이(봄내 산책로 이음길)다. 1코스 배움길부터 봄솔길, 옷바위길, 윤슬길, 문소길, 도심길(근대문화유산 답사)을 6회에 걸쳐 연재한다.

글 · 사진 **신용자** 여행기획자



산책로는 도심 곳곳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면서 만들어진 길이다. 가벼운 차림으로 집을 나서면 닿을 수 있는 곳에 소나무숲 오솔길이나 물깨길(물가길)이 있으니, 사람들의 발길을 끌어당길 수밖에 없다. 춘천에는 애막골 산책로를 비롯 공지천, 안마산, 드름산, 봉의산, 강원대 산책로 등이 있다. 이들 산책로는 접근성이나 편리성이 좋아 손꼽히는 도심 산책로다. 산책로야말로 무시로 다닐 수 있는 걷기 자크르한('딱 알맞게 좋다'의 순우리말) 길이다.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지도 않다. 동의보감을 지은 허준은 '약보藥補'보다 '식보食補'가 낫고, 식보보다 '행보行補'가 낫다고 했다. 걷기야 말로 살아있음의 확인이다.

애막골 산책로는 후평동 일대로 이어지는 다양한 산책로가 뻗어 있다. 동부노인복지회관에서 출발해 솔숲으로 가르마처럼 이어지는 산책로를 걸어, 첫 번째 구름다리를 지나 두 번째 구름다리에서 오른쪽 길로 내려서면 새벽시장이 이어진다.

애막골은 벌말(석사동)에서 안쪽으로 쑥 들어간 안막골이 애막골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과수원이 많았던 곳으로 원두막, 초막 등이 있었다. 다른 이야기로는 아이들의 무덤인 애총이 있었던 곳에서 유래되었다고도 한다.

새벽마다 사람 발길 줄 잇는 애막골 새벽시장





애막골 새벽시장(위)과 애막골 산책로 입구 어린이집에서 장식해 놓은 모습

석사동 대우아파트 맞은편 언덕에 새벽장이 열리는 장터가 있다. 번개시장이라고도 불렸으나 지금은 새벽시장, 언덕시장으로 불린다. 아파트 단지가 둘러 있는 6차선 대로 옆 인도에 장이 선다. 이곳은 산책로와 연결되는 곳으로 처음에 김밥과 샌드위치를 팔기 시작하면서 장터가 만들어졌다고 한다. 지금도 포장마차 상점에서 즉시 말아주는 뽕잎김밥집은 길게 줄을 서야 한다. 다양한 먹거리와 신선한 푸성귀, 과일가게와 옷가게 등 언덕길에 빈틈이 없다. 평일에도 새벽장이 서지만, 주말이면 새벽부터 사람들로 북적이는 저잣거리가 된다. 처음에는 언덕 입구부터 오는 순서대로 자리를 잡았다고 하는데, 지금도 언덕 아래 쪽은 새로 오는 사람들이 좌판을 펴는 곳이라고 한다. 예전처럼 좌판을 벌여 놓은 장이 서고 오전 11시쯤이면 언제 장이 섰나 싶게 말끔히 사라진다.(오전 6~10시, 연중무휴)

700년 세월 담긴 고성이씨 묘역



이곳에서 사거리를 건너면 왼쪽으로 강원대학교 산책로로 연결되는 길이 있다. 그 전에 아래쪽(대우아파트)으로 내려가면 '풍양조씨 묘역'이 있다. '고성이씨 묘역'으로 더 잘 알려진 곳이다. 무덤의 주인공은 고성이씨와 아들인 조안평이다. 고성이씨는 고려 말 행촌杏村 이암李嵒(1297~1364)의 따님으로, 풍양조씨인 조신趙愼에게 출가하여 조안평趙安平과 조개평趙開平 두 아들을 두었다. 그러나 남편인 조신의 둘째 형이 고려 말 전횡을 일삼던 신돈을 제거하는 거사를 도모하다 사전에 탄로 나 죽임을 당하



고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할 위기에 처하자 남편은 차남인 개평을 데리고 충남 부여로, 부인인 고성이씨는 장남인 안평을 데리고 춘천으로 피신했다.

고성이씨의 아버지인 행촌 이암은 고려 공민왕 때 수문하시중을 지낸 문신이자, 서예 명필로 춘천 청평사 '문수사시장경비' 글씨를 쓴 분이며, 고조선 역사인 『단군세기』를 남긴 분으로도 유명하다. 57세인 1353년 청평산에 입산, 5년간 머물렀다고 한다. 이런 인연으로 고성이씨가 춘천을 피신처로 택한 것이다.

고성이씨는 아들을 훌륭하게 키운 공로로 조선 초 강원도 여성으로는 처음 정려를 받은 분이며, 풍양조씨 가문이 춘천에 정착하는 계기가 됐다. 조안평은 여말선초에 활동한 인물이다. 묘역은 위쪽이 아들 조안평, 아래쪽이 어머니 고성이씨의 무덤이다. 700년 세월이 담긴 묘역 입구에 새로 세운 신도비가 있다.

3코스(옷바윗길)인 드름산 들머리 칠전동에는 같은 시기 신돈의 개혁정책에 참여했던 김정 묘역이 있다.

시민에게 담장 허문 강원대학교 산책로

강원대학교는 1947년 춘천농업대학으로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1970년 종합대학인 강원대학교로 변경됐다. 우리나라에서도 손꼽히는 넓은 캠퍼스에는 수많은 건물을





강원대학교 미래의광장과 국립춘천박물관

품어주는 산림과 연못 등 자연환경이 뛰어나다. 열린 캠퍼스를 지향하며 2016년 산책로를 조성했다. 이 둘레길은 율곡관~창강제지기술연구소~환경연구소~친환경농업연구센터~중앙도서관~미래광장~연적지~함인섭광장을 연결하는 2.2㎞로 약 1시간 코스.

강원대의 중심구역인 미래광장과 연적지는 휴식공간으로 사계절 아름다운 공간이다. 함인섭 광장은 강원대 초대 학장으로 6대 학장까지 지내며 강원대의 기틀을 다진 함인섭(1907~1986)을 기리는 광장이다.

2021년 가을부터는 의학전문대학원과 애막골을 잇는 담장을 허물어 시민들과 함께 누리는 휴양공원으로 조성했다. 강원대학교 동문으로 나가 도로로 직진하면 춘천국립박물관으로 이어진다. 올해 개장한 어린이박물관과 주차장, 쉼터와 야외공원을 지나 박물관 정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

대형 실감영상·야외 정원 등 품은 국립춘천박물관

국립춘천박물관은 1995년 착공, 2002년 개관했다.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로 나뉘며, 1층에는 강원의 옛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선사실과 고대실이 있다. 2층은 강원의 중세 고려, 근세 조선, 대한민국과 기획전시실, 브랜드실이 있다.

밖에는 기억의 정원과 현묘의 정원 및 고인돌, 야외무대, 갤러리 카페 등이 있으며, 주차장 옆에 2021년 개관한 어린이박물관이 있다.

박물관 정면에 서면, 삼악산 전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게다가 박물관 본관 대형 벽과 계단에서는 매 시간 초고화질 실감영상이 상영되고 있다. 금강산과 관동팔경 등 전시중인 작품들을 소개해 웅장한 작품 속으로 들어가는 놀라움을 경험할 수 있다. 야외 카페와 정원도 아름답게 꾸며져 산책하며 계절을 즐기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다.

국립춘천박물관에서 오른편 기억의 정원 계단을 오르면 바로 춘천시립도서관이 나타난다. 1960년 춘천시 옥천동에서 도립도서관으로 개관, 1990년 삼천동으로 이전 개관했다. 2017년 시립도서관을 신축, 이전했으며, 1층에는

강원대학교 연적지





춘천교대 뒷편 산책로

어린이도서관과 어린이장난감 도서관이 있고, 2층에는 일반 열람실이 있다.

초등교사 산실·추억의 굴뚝 '눈길' 춘천교대

이 도서관 옆으로 산책로가 이어진다. 춘천교대로 이어지는 능선길 산책로다. 30여분 산 능선 숲 속 길을 걷다 보면 방향 감각을 의심하게 된다. 산길은 차도와 달리 지름길이라 언뜻언뜻 보이는 건물들이 낯설다. 군데군데 춘천교대 돌 표식이 나타나 길잡이 역할을 한다. 산책로 끝머리에 거두리성당과 춘천교대 내리막길이 있다. 춘천교대 울타리 사이로 들어서면 제일 처음 만나는 게 높다란 굴뚝이다.

춘천교육대학은 1939년 관립춘천사범학교(현 춘천교대)로 설립됐다. 현 봉의초교 자리에서 개교했으나 1941년 석사동 현 춘천교대 위치에 건물을 새로 지어 이전했다. 일제강점기 사범학교는 초등교사(당시에는 훈도라 불렀다)를 양성하던 중등 수준의 국립(당시에는 관립) 교육기관이며 각 도별로 설치돼 초등교사를 양성하고 배출했다. 치열한 경쟁을 통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학생들은 1년 이상 의무적으로 기숙사에 입소해야 했다.



춘천교대 굴뚝

어떤 건축물이든 역사가 담겨 있기 마련이다. 1980년대 춘천교대에서는 학교 환경정비 차원에서 일제강점기 세워진 기숙사 식당 굴뚝을 철거하려다가 동문의 항의로 남겨두었다고 한다.

춘천교대의 상징처럼 된 은행나무길은 가을이면 샛노란 카펫으로 변한다. 예전에는 하얀 백양나무 숲길이었다고 한다.

이곳은 우리나라 동요의 산실이기도 하다. 춘천교대 동문들이 지은 '과수원 길' '꽃밭에서' '그리운 언덕' 등의 노래비가 있다.

석사동은 퇴계동과 더불어 춘천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기도 하다. 석사천이 흐르는 동쪽 마을로 원래 모래와 자갈이 많아 벌말로 불렸으며, 한자로 석사石砂동으로 썼으나 춘천교대가 들어오면서 석사碩士동이 되었다.

국립춘천박물관 대형 실감영상



봄내문화생활

[류인석 탄생 180주년 기념공연] 연해주의 꿈: '독립'

1908년 류인석이 연해주로 떠난다. 그곳에서는 이범윤, 홍범도 등이 국내진공작전(일제 강점기에 항일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외국에서 군대를 양성하여 국내로 진공하는 형식으로 진행된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다. 연해주의 독립지사들은 1910년 13도 의군을 조직하고 1914년 최초의 국외임시정부를 탄생시킨다. 이번 공연에서는 류인석과 독립지사들의 눈부신 활동을 소개한다.

일시 10. 1.(토) 16:00 ~ 17:00
장소 의암류인석기념관(남면 충효로 1503)
문의 ☎264-3980



[2022 찾아가는 작은 콘서트]

코로나19로 지쳤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기획된 힐링 콘서트로, 문화예술 소외지역과 공공목적의 운영공간을 직접 찾아가 공연하는 프로그램이다. 춘천지역 전문예술단체 10팀의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일시장소
10. 1.(토) 15:00 의암 류인석 기념관
10. 2.(일) 19:00 국립춘천숲체원
10. 4.(화) 14:00 춘천 원광효도의 집
10. 5.(수) 16:00 춘천 강북지역아동센터
10. 12.(수) 14:00 모술재
10. 18.(화) 14:30 춘천원광효도의집
10. 29.(토) 14:00 춘천지하상가
10. 29.(토) 19:00 육림고개 야외광장

입장료 무료
관람연령 전 연령
문의 ☎259-5837

[뮤지컬 더북]

뮤지컬 '더북'은 1517년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으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보다 앞선 100여년 전, 목숨을 걸고 '오직 성경'을 전했던 '성경이 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담고 있다. 뮤지컬은 성경이 어떤 과정을 통해 세상에 퍼지게 되었는지, 개신교를 탄생시킨 종교개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흥미로운 역사가 주는 묵직한 감동을 선사한다.

일시 10. 6.(목) ~ 8.(토) 19:00(*토 14:00 추가 공연)
장소 강원대 백령아트센터
입장료 2만원
관람연령 초등학생 이상 관람 가능
예매 및 문의 ☎010-2561-2819, 010-2742-2819



[2022 춘천 문화재 야행]

춘천으로 떠나는 낭만달빛산책 '월하자적月下自適'



춘천으로 떠나는 낭만 달빛 산책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문화재 야행夜行의 7가지 테마(야경, 야로, 야사, 야화, 야설, 야식, 야시)에 맞춰 야간 볼거리, 체험거리, 플리마켓 등 다채로운 행사가 춘천시 문화재 일원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봄이 오는 시내라는 춘천의 순우리말인 '봄내'를 주제로, 지역의 대표 문화유산을 걸으며 즐길 수 있는 야간문화 향유 콘텐츠다. 행사기간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다.

일시 10. 7.(금) ~ 8.(토) 18:00~22:00
장소 춘천시청 일원(강원도지사 구관사, 춘천향교, 위봉문 및 조양루, 춘천교구 죽림동 주교좌 성당)
문의 ☎02-2038-8938(한국문화유산연구센터)

* 코로나19 및 주최 측 사정에 따라 세부 내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춘천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발레 '시월 〈애기섬〉'

발레 '시월 〈애기섬〉'은 73년 전, 1948년 해방 이후 극도로 불안한 좌와 우의 이념적 갈등 속에서 10월 19일 여수와 순천을 중심으로 발생한 여순사건을 배경으로 한 창작발레다. 국립발레단 주역 출신 윤전일, 현대무용계의 스타 안남근, 발레리나 황수진 등이 출연한다.

일시장소 10. 8.(토) 17:00 춘천문화예술회관
입장료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예매 및 문의 www.cccf.or.kr / ☎259-5822~4



[아트팩토리:봄 김유정 프로젝트] 금따는 콩밭



(사)문화프로덕션 도모가 '김유정 프로젝트'를 진행, 3년간 김유정 작품 7편을 무대에 올리고 있는 가운데 세 번째 공연으로는 '금따는 콩밭'을 공연한다. 김유정 소설을 연극으로 재구성한 작품으로, 1930년대 마을에서 묵묵히 일하던 영식이 콩밭에서 금이 나온다는 친구의 이야기를 들은 후 콩밭을 엎고 금점을 찾기 시작하면서 전개되는 내용이다. 연출은 변유정이 맡는다. '극장식당'과 함께 운영, 연극에 등장하는 요소나 관련 깊은 식재료를 이용한 음식과 주류를 함께 즐길 수 있다.

일시 10. 14.(금) ~ 11. 6.(일)
금 19:30, 토 17:00, 일 14:00
장소 아트팩토리:봄(신동면 풍류1길 34)
입장료 2만원 / 4만원(극장식당)
문의 ☎263-7222
(온라인 예매 및 각종 할인정보는 네이버 예약 페이지 확인)

[춘천시립청소년합창단 제26회 정기연주회] 사운드 오브 뮤직

올해 춘천시립청소년합창단이 마지막으로 선보이는 정기연주회로, 뮤지컬의 대표적인 작품 '사운드 오브 뮤직'을 청소년합창단만의 색깔과 음색으로 재구성하여 선보인다.

일시장소 10. 15.(토) 19:00 춘천문화예술회관
입장료 전석 무료
관람연령 5세 이상
예매 www.ccart.kr
문의 ☎259-5874 / 5879

[춘천시립교향악단 제164회 정기연주회]

춘천시립교향악단의 올해 마지막 정기 연주회가 열린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베버의 오페라 '마탄의 사수' 서곡을 시작으로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가단조 작품번호 622', 브람스의 '교향곡 제1번 다단조 작품번호 62'를 선보인다. 협연자로는 국내외 왕성한 활동을 통해 명성을 떨치고 있는 클라리네스트 조인혁(한양대 음대 교수)이 출연한다.

일시장소 10. 20.(목) 19:30 춘천문화예술회관
입장료 전석 1만원(춘천시민 30% 및 학생 50% 할인 등)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예매 www.ccart.kr
문의 ☎259-5869/5878



[한복진흥센터 2022한복문화주간] 에지 있는 한복 소양강에 퍼지다

잠들어있던 장롱 속 한복을 리폼해 선보인다.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소양강스카이워크에서 한복 패션쇼에 참여해볼 수 있다. 한복 런웨이와 풍물놀이, 택견 공연, 전통한복 복식 체험 행사 등도 마련된다.

일시장소 10. 22.(토) 10:00 ~ 15:00 소양강스카이워크
문의 ☎242-3033(우리색동한복연구소)

[국립춘천박물관 개관20주년] '인연, 스무살의 시작'

일 시	공 연	장 소
10. 22.(토) 19:00	콘서트 '밤하늘의 별(all)'	국립춘천박물관 야외공연장
10. 23.(일) 15:00	합합·국악 컬래버 '라임의 왕 김삿갓'	국립춘천박물관 야외정원

국립춘천박물관이 개관 20주년을 맞아 '인연, 스무살의 시작'이라는 타이틀로 다양한 문화행사를 연다.

입장료 무료
문의 ☎255-1555



[춘천시립합창단 제113회 정기연주회]

산천초목이 형형색색으로 물들어 가는 10월,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공연을 선보인다. 이번 연주회는 우리말, 우리 심상을 담아낸 한국 가곡 위주의 곡들과 관객 설문조사를 통해 '춘천시민이 듣고 싶은 가곡'을 추천받아 시민들과 함께한다.

일시 10. 28.(금) 19:30
장소 춘천문화예술회관
입장료 전석 1만원(춘천시민 30% 및 학생 50% 할인 등)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예매 www.ccart.kr
문의 ☎259-5874 / 5877



[2022 어바웃 타임 중도]

당신의 일상에 특별함이 스며들게 하는 축제!

'어바웃 타임 중도'는 2020년에 시작된 축제로, 10월 아름다운 섬과 숲이 예술로 채워진다. 자연에서 펼쳐지는 공연과 숲과 물이 어우러지는 시공간은 시민에게 휴식을 선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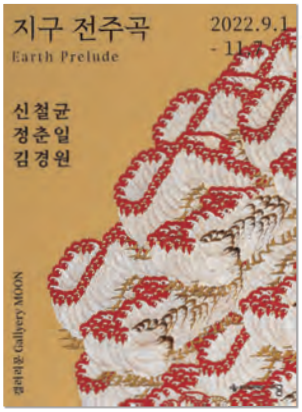
일시 10. 28.(금) ~ 30.(일)
장소 하중도 생태공원
입장료 무료
관람연령 전 연령
문의 ☎259-5452



[갤러리문 기획전시] 지구 전주곡, Earth Prelude

'길들여지고 구속된 많은 것들을 자연의, 그리고 자유로운 것들'에 비추어 사유하고 상상하는 작업을 제안한다.
신철균, 정춘일, 김경원 작가의 작품은 자연과 생명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을 제시한다. 자연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동물들의 생육환경과 피해에 주목하고, 자원의 순환을 고민하는 작품들을 선사한다.

일시 9. 1.(목) ~ 11. 7.(월)
(전시기간 중 공연장 개방일에만 전시장 오픈)
장소 춘천문화예술회관 2층 로비
문의 ☎259-5832/5833



[국립춘천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실감콘텐츠 '평화의 시간'

국립춘천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야외정원에 새롭게 조성한 실감콘텐츠로 3D애니메이션과 실경영상을 통해 강원도 DMZ 일대의 자연 및 관련 내용을 감상할 수 있다.

일시 매일 18:00 ~ 21:30
장소 국립춘천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야외정원
입장료 무료
문의 ☎260-1500



[시민 릴레이 전시] 포스터 in 춘천

1980년대부터 춘천에서 이루어진 문화행사 관련 포스터를 수집해 온 공연기획자 박동일의 수집품인 포스터 전시가 '포스터 in 춘천'을 주제로 진행된다. 웹 문화가 보편화되기 이전 각종 문화행사의 중요 홍보 수단이었던 포스터 전시를 통해 시민들에게 당시 시대 흐름과 상황 속의 문화 감성을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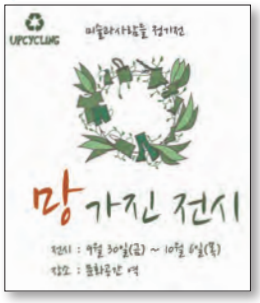
일시 9. 13.(화) ~ 11. 30.(수) 11:00 ~ 18:00
장소 시민생활문화전시관 (서부대성로44번길 2, 1층)
문의 ☎250-3485, 252-3336



[미술과사람들 정기전] 망가진 전시

미술과 사람들이 정기전을 연다.
참여작가 : 김남주 김운연 김춘배 박명옥 박병민 박선옥 유환석 이수현 이청옥 이형석 조옥주 최승희 최지관 허미순

일시 9. 30.(금) ~ 10. 6.(목)
장소 문화공간 역
문의 ☎010-3436-3872



[2022 서현종 개인전]

그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나무 한 그루 展

서양화가 서현종의 열한 번째 개인전이 열린다. 아크릴화 20점 정도 전시될 예정이며, 그림의 주된 주제는 숲, 정원, 나무들이고 춘천의 이미지를 담았다. 어릴 적 어느 마을이든 꼭 한 그루씩은 있었던 큰 나무, 언제부턴가 큰 나무는 사라지고 나무 주위에 모였던 사람들도 보이지 않는다.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것 같던 그 큰 나무를 추억한다.

일시 10. 1.(토) ~ 10.(월)
장소 갤러리 공간제로 (동면 공단로 104)
문의 ☎251-9363



[그리미전]

강원대 평생교육원 유화반그리미가 열 번째 전시회를 갖는다. 그림을 사랑하는 15인이 코로나19 이후 2년여의 침묵을 깨고 10~20년 세월로 다져진 필력을 바탕으로 유화만의 깊이를 만들어 선사한다. 김옥 문정 박계순 박경애 박부용 박태연 석은경 송선양 신윤자 윤월옥 이영자 최의숙 최준희 황향익이 참여한다.

일시 10. 1.(토) ~ 31.(월)
장소 카페줄루 (춘천순환로108)
문의 ☎262-2411



박부용 作

[이윤주의 삶 Ⅳ] 소꿉농부의 옻살림

이번 전시는 살림에서 사용하는 생활용품들을 주제로 삼고 있다. 특히 귤껍질로 만든 잔이나 달걀껍데기를 칠기의 문양으로 활용하고, 깨진 도자기를 수리해 다시 사용하는 것은 작가의 철학과 맞닿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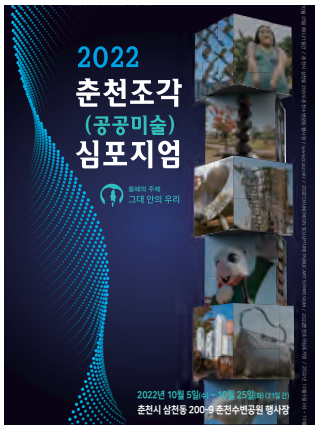
일시 10. 7.(금) ~ 13.(목)
장소 문화공간 역
문의 ☎010-2988-9663



[2022 춘천조각(공공미술)심포지엄] 그대안의 우리

역량 있는 국내 조각가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우수한 작가 9명을 선정, 춘천에서 21일간 야외조각 작품을 공개 제작한다. 완성된 작품은 춘천 시내 일원의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게 된다. K-Art가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는 지금, 우리의 미의식과 재능, 감각의 밑바탕에 흐르는 한국문화인 '우리'의 근원적인 것을 캐고, 정체성에 한 발 더 다가가고자 한다. 도슨트 프로그램, 체험부스(주말), 문화강좌(주중), 심포지엄 특별교류전 등도 운영된다.
참여작가 : 김상균 김재호 김지현 박헌열 양재건 위세복 장국보 정원경 최중갑

일시 10. 5.(수) ~ 25.(화)
장소 춘천수변공원 행사장(삼천동 220-9)
문의 ☎010-4087-2534



[김분호 개인전] 매월당의 춘천이야기

매월당 김시습의 춘천이야기를 한문서예·한글서예 및 전각을 각 서체별로 펼쳐 놓는다. 특히 한글날을 기념해 600년 전 한문시를 오늘의 서예로 표현, 글씨 예술 속에서 과거와 현재의 시간여행을 통해 춘천의 아름다움을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시 10. 7.(금) ~ 12.(수)
장소 춘천미술관 1층
문의 ☎010-8793-3092



[박복균 개인전] 꽃이 내게 묻다

"삶의 위안과 예술적 영감을 주는 꽃들의 눈빛에 애정을 담고 화폭에 옮긴다. 그것들과 소통을 통한 감각적 즐거움을 귀하게 여기며 잠재된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한다."
작가의 말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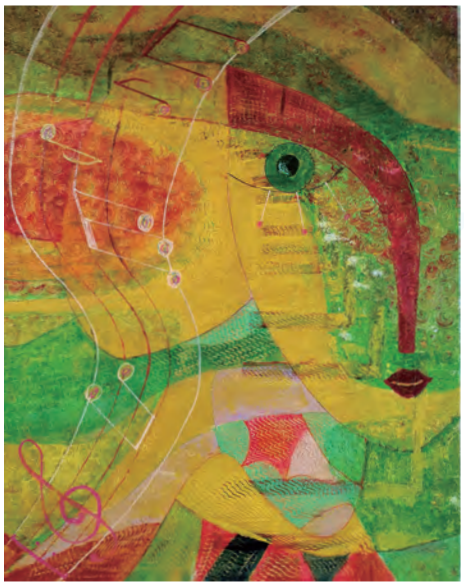
일시장소 10. 7.(금) ~ 13.(목) 구암갤러리
10. 14.(금) ~ 19.(수) 춘천미술관
문의 ☎010-9401-8568



[제6회 호반윤슬ART 서양화 展 및 아트체험 행사]

호반윤슬ART는 '춘천시민과 함께하는 그림여행'을 주제로 풍경과 정물, 비구상 작품을 전시한다. 산책하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수채화 및 아크릴 아트체험 행사도 함께 연다.

일시 10. 8.(토) 11:00 ~ 16:00
(체험 13:00 ~ 15:00)
장소 공지천 야외공원
문의 ☎010-5427-2770


손준호 作

[김현철 개인전]

서양화가 김현철씨의 두 번째 개인전이 열린다.
국보 101호이자 고려의 대표적인 조각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화려해서 슬픈' 일제 수탈의 아픈 역사를 간직한 법천사지 지광국사현묘탑의 귀향을 염원하는 작가의 간절함이 작품 속에 녹아 있다. 탑비의 받침돌 귀부龜趺와 천년의 세월을 오롯이 지켜낸 느티나무 연작, 돌탑과 영혼을 상징하는 하얀 나비를 통해 삶과 죽음의 의미를 담은 작품 등 20여 점이 전시된다.

일시 10. 14.(금) ~ 19.(수)
장소 춘천미술관 제1전시실
문의 ☎241-1856



[춘천민예총 사진협회 정기전]

일시 10. 14.(금) ~ 20.(목)
장소 문화공간역
문의 ☎010-9542-3933

[지헌익 사진전] 빛과 그림자 III

사진작가 지헌익은 우리 주변을 두루 다니며 자연을 가까이하는 시간을 갖고, 그 결과물로 개인전을 개최한다. 호수 위에 비치는 태양의 변화하는 모습과 일출, 일몰의 신비로운 순간을 아름다운 빛의 색채로 담아냈다.

일시 10. 19.(수) ~ 23.(일) (오프닝 10. 19.(수) 14:00)
장소 아트프라자갤러리(서부대성로 71)
문의 ☎010-5361-7745



[여명전]

40년 전 창립 후 꾸준한 전시를 이어 가고 있는 여명회가 우리의 삶과 주변의 풍경을 주제로 회화, 조소, 공예 등의 작품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회는 20여 명의 작가가 참여한다.

일시 10. 21.(금) ~ 26.(수)
장소 춘천미술관 1층
문의 ☎010-8797-21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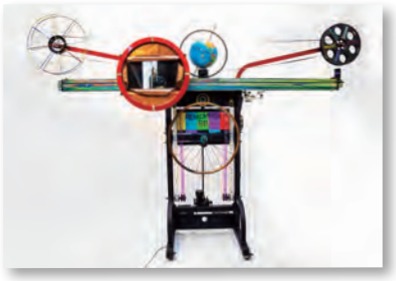


김윤근 作

[윤운복 개인전] Remember60

정크 키네틱아트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윤운복의 다섯 번째 개인전이 열린다. 'Remember60'을 주제로, 마음속 잃어버린 꿈과 희망을 필름과 영상모니터를 활용해 작품화했다. 과거와 현재의 경계를 허물고, 아날로그 필름을 통해 구동되는 'Remember60'을 통해 전시회를 꾸민다.

일시장소 10. 21.(금) ~ 26.(수) 춘천미술관 제2전시실
문의 ☎010-4256-9985



[최선아 개인전] 적연寂然

불교에서는 '적연'을 마음이 고요하고 맑은 상태, 모든 번뇌를 남김 없이 평온하게 된 열반의 상태를 말한다. 산과 강, 안개와 나무 등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연을 주제로 먹과 채색을 반복적으로 올려 내면의 상념을 비워내는 작업을 통해 화폭에 담았다.

일시 10. 21.(금) ~ 27.(목)
장소 문화공간역
문의 ☎010-8549-5984



[창작과정 지원사업 '생각의 탄생' 기획展]

예술이 없는 도시에서 단 하루만이라도 살아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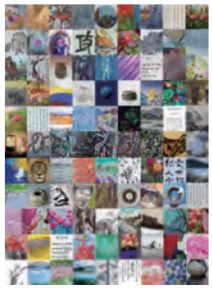
예술가의 창작 전 과정을 기록한 아카이빙 작품을 전시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공동창작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쓸모를 잃고 방치된 공간에서 예술을 만나고 경험하며 질문과 생각을 찾아가는 과정들을 선사한다. 전시주간 동안 매주 금~일요일은 공연(연극, 인형극, 음악 등)이 펼쳐질 예정이다.

일시 10. 21.(금) ~11. 6.(일) 12:00 ~ 21:00
장소 근화동 720
입장료 관람 무료
관람연령 전 연령
문의 ☎259-5451



[제61회 춘천미술협회전] 전통의 재해석

춘천미술협회는 61주년을 맞아 '전통의 재해석'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는 협회 정기전을 연다.
춘천미술협회의 작가들이 서로 다른 장르에 적용되어 온 소재나 기법 등을 응용해 다양한 개념이 녹여진 전시가 될 예정이다.



일시 10. 26.(수) ~ 11. 2.(수)
장소 춘천문화예술회관
문의 ☎241-1856

[리딩스케치] '해와달을 삼킨 소양강'

춘천의 10대 청소년 31명과 함께 진행한 문화예술교육 작품 전시회이다. 리딩스케치가 기획한 전시로, 해와 달이 뜨던 소양강이 해와 달을 삼킨 소양호가 된 이야기를 시와 그림에 담았다. 또한 공동 작업한 희곡을 바탕으로 전문배우가 공연을 하며, 미술관 전체가 무대가 되어 청소년들만의 상상력 넘치는 조형물들로 수몰민들의 삶을 위로하고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는 전시이다.

일시 10. 28.(금) ~ 11. 2.(수)
(오프닝 10. 29.(토) 14:00)
장소 춘천미술관
문의 ☎241-1856



[제34회 춘천인형극제] 코코바우 스테이지

장소 춘천인형극장 대극장
입장료 1만5,000원
예매 및 문의 ☎242-8452

일 시	극단과 공연명
10. 4.(화) ~ 8.(토) 평일 10:30 / 19:30 주말 11:00 / 14:00	즐거운 사람들 '불켜는 아이'
10. 13.(목) ~ 23.(일) 평일 10:30 / 19:30 주말 11:00 / 14:00 *월요일 휴무	극단 로기나래 '해를 낚은 할아버지'
10. 25.(화) ~ 29.(토) 화~목 10:30 금 10:30 / 19:30 토 11:00 / 14:00	예술무대산 '루루섬의 비밀'

[2022 춘천연극제 10월 일정]

문의 ☎241-4345

* 봄내극장(입장료 2만원 : 카카오채널 친구 추가 시 50% 할인)만 유료

일 시	공 연	장 소
9. 30.(금) ~ 10. 2.(일) 금 · 토 19:30 / 토 · 일 15:00	가을, 반딧불이	봄내극장
10. 5.(수) ~ 7.(금) 18:30	담배의 해로움에 관하여 서커스 클래식	카페 올해의 땅
10. 14.(금) ~ 16.(일) 금 · 토 19:30 / 토 · 일 15:00	트루웨스트를 꿈꾸며	봄내극장
10. 21.(금) ~ 23.(일) 금 · 토 19:30 / 토 · 일 15:00	강원일보 신춘문예 당선작 '마주보는 집'	봄내극장
10. 29.(토) 13:00	전시, 프리마켓, 포럼, 야외공연, 폐막공연 등	봄내극장무료
10. 11.(화) ~ 29.(토) 9:00	고맙데이 전시	봄내극장무료

[10월 지역대표 문화예술 마임 상설공연]

올해 춘천 곳곳에서 열린 상설공연이 10월 마임 공연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문의 ☎242-0585

일 시	공 연	장 소
10.5.(수) 19:30	'스텝 바이 스텝' 외	공지교 ~ 효자교 산책로
10.12.(수) 19:30	'서커스올림픽' 외	
10.19.(수) 19:30	'사랑으로 꽃 피우다' 외	
10.26.(수) 19:30	'선물' 외	

[2022춘천지역도서전] '춘천, 쓰고 읽고 말하다'





이번 도서전은 지역의 숨은 작가를 찾아 독자들과 이어주는 지역작가와 독자의 만남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책을 출간했지만 홍보가 어려워 잘 알려지지 않고 판매가 어려운 작가들의 책을 전시, 홍보하며 판매하는 책시장도 연다. 전업 작가뿐 아니라 일반 시민으로 자신만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든 사람들을 찾아내 글 쓰고 책 만드는 공통의 관심을 나누고 서로 힘을 나누는 시간이다. 책 전시와 함께 지역작가의 책을 읽고 이야기하는 북토크, 출판사와 작가가 함께 자리하여 춘천의 책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토론회도 연다. 특별행사로 강원도민일보가 주관하는 동요대회와 어린이책 전시도 함께 연다. 춘천은 유명 동요작곡가를 배출한 곳이다. 김공선, 정세문 등 우리나라 동요계의 주요 인물들이 춘천교대 전신인 춘천사범 출신으로 그들의 노래 '과수원길'(김공선 작곡), '그리운 언덕' (정세문 작곡)의 노래비가 춘천교정에 있다. 이 가을, 달려온 길을 멈춰서서 생각을 키우고 나만의 글 쓰기, 책 쓰기를 안내하는 2022춘천지역도서전을 만나자.

문의 ☎251-9362









일 시	구 분	프로그램	장 소
10. 21.(금) 14:00	특별프로그램(사전행사)	어린이동요대회 – 어린이책전시 및 동요대회	시청대회의실
10. 20.(목) 15:00	춘천을 말하다	토론회 – 지역출판활성화 방안 논의	갤러리공간제로
10. 22.(토) 15:00 10. 23.(일)11:00/15:00		북토크 – 책을 쓰고 만드는 사람들	춘천시립도서관 문화교실
10. 22.(토) ~ 23.(일)	춘천을 읽다	전시 '춘천작가 도서전' '내 서재의 오랜책' 그린마켓 – 도서교환, 친환경아트상품 판매	춘천시립도서관 일대
9. 16.(금) ~ 10. 30.(금)	춘천을 쓰다	춘천이야기 스토리공모를 통한 이야기책 발간	춘천 일대

[춘천SF영화제] 국내 유일의 SF영화제

일시 9. 29.(목) ~ 10. 3.(월)
장소 메가박스 석사점(엔타2022) 3~6관, 국립춘천박물관 강당, 커먼즈필드춘천(야외상영)
입장료 무료(*좌석 예약은 사전에 홈페이지 시간표에서 안내)
홈페이지 http://ciff.kr **문의** ☎251-3370

상영시간표 가이드
Screening Schedule Guide

등급 RATING
Ⓖ 전체 관람가
⑫ 12세 이상 관람가
⑮ 15세 이상 관람가

상영관 THEATER
M3 메가박스 석사 3관
M4 메가박스 석사 4관
M5 메가박스 석사 5관
M6 메가박스 석사 6관

감독과의 대화 GV

Movie Schedule

9월 29일 목요일

	커먼즈필드
3	18:30-19:10 개막식 170 min
4	19:20-19:57 [개막작] <너를 비춘 빛, 나를 비추고> <아빠는 외계인> ⑮ 37 min

10월 3일 월요일

	국립춘천박물관
1	10:30-12:18 [SF 클래식] 월-E Ⓖ 98 min
2	13:10-14:39 [춘천의 시선:SF스펙트럼] 단편 2 ⑫ 79 min

9월 30일 금요일

	M4	M5	커먼즈필드	국립춘천박물관
1	10:30-11:59 [경쟁:국제독립SF] 감춰진 세계 Ⓖ 79 min	11:00-12:32 [춘천의 시선:SF스펙트럼] 마인드 유니버스 Ⓖ 82 min		10:30-13:19 [춘천의 시선:다큐 포커스] 물방울을 그리는 남자 GV Ⓖ 79 min
2	13:00-14:20 [경쟁:한국독립SF] 단편 1 Ⓖ 70 min	13:30-14:57 [경쟁:국제독립SF] 단편 3 ⑫ 77 min	SF ♥ 춘천, 춘천시민과 함께 하는 깜짝 야외상영	15:30-17:10 [춘천의 시선:국제SF] 알고리즘의 편견 ⑫ 90 min
3	15:10-16:30 [경쟁:한국독립SF] 단편 2 ⑮ 70 min	16:00-17:55 [경쟁:국제독립SF] 월드 크루저 Ⓖ 105 min	15:00-16:32 [춘천의 시선:SF스펙트럼] 마인드 유니버스 Ⓖ 82 min	
4	17:30-18:54 [춘천의 시선:국제SF] 인공불멸 ⑫ 74 min	18:50-20:03 [춘천의 시선:SF스펙트럼] 단편 3 ⑫ 63 min	17:00-18:20 [춘천의 시선:국제SF] 드로스테 저편의 우리들 ⑫ 70 min	
5	20:00-21:46 [춘천의 시선:다큐 포커스] 망명자들 ⑫ 96 min	21:00-22:40 [춘천의 시선:SF스펙트럼] 단편 4 ⑮ 90 min		

10월 1일 토요일

	M3	M4	M5	M6	커먼즈필드	국립춘천박물관
1	11:00-12:48 [SF 클래식] 월-E Ⓖ 98 min	11:00-12:24 [춘천의 시선:국제SF] 인공불멸 ⑫ 74 min	10:30-11:49 [경쟁:국제독립SF] 단편 1 ⑮ 69min	10:30-12:25 [경쟁:국제독립SF] 월드 크루저 Ⓖ 105 min		10:30-12:40 [경쟁:어린이청소년] 단편 1 GV Ⓖ 80 min
2	13:40-15:40 [경쟁:한국독립SF] 단편 1 GV Ⓖ 70 min	13:20-15:50 [춘천의 시선:SF스펙트럼] 단편 1 GV ⑫ 100 min	12:40-15:57 [춘천의 시선:다큐 포커스] 전장의 A.I. GV ⑫ 107 min	13:30-14:51 [경쟁:국제독립SF] 단편 2 ⑫ 71 min	14:00-18:00 'SF_LOVE_춘천' 춘천 시민과 함께하는 SF 오픈 토크 진행자 박상준 서울SF아카이브 대표	13:30-15:36 [경쟁:어린이청소년] 단편 2 GV Ⓖ 76 min
3	16:40-18:47 [경쟁:한국독립SF] 단편 3 GV ⑮ 77 min	16:40-19:06 [춘천의 시선:SF스펙트럼] 마인드 유니버스 GV Ⓖ 96 min	16:50-19:02 [춘천의 시선:SF스펙트럼] 단편 4 GV ⑮ 82 min	16:00-18:36 [SF 클래식] A.I. ⑫ 146 min	<1부 '경이로운 SF! 끝내주는 재미! 나의 SF 입덕기'> 게스트 김진우 <양자전쟁> 연출 원종우 작가 <과학하고 앉아있네>	16:30-17:56 [SF 클래식] 로보트 태권브이 Ⓖ 76 min
4	19:50-21:13 [경쟁:한국독립SF] 단편 4 ⑮ 73 min	20:00-21:34 [춘천의 시선:국제SF] 로봇 브라더 ⑫ 84 min	20:00-21:58 [춘천의 시선:SF스펙트럼] 오마주 ⑫ 108 min	19:30-22:16 [춘천의 시선:다큐 포커스] 2차 송환 ⑫ 156 min	<2부 '화성이주의 꿈! 지구를 지킬 것인가? 버릴 것인가?'> 게스트 과학커뮤니케이터 궤도 <승리호> 유강서애 + 윤승민 작가	

10월 2일 일요일

	M3	M4	M5	M6	국립춘천박물관
1	10:30-11:51 [경쟁:국제독립SF] 단편 2 ⑫ 71 min	11:00-12:20 [춘천의 시선:국제SF] 드로스테 저편의 우리들 ⑫ 70 min	11:00-12:27 [경쟁:국제독립SF] 단편 3 ⑫ 77 min	10:30-12:27 [춘천의 시선:다큐 포커스] 전장의 A.I. ⑫ 107 min	10:30-12:36 [경쟁:어린이청소년] 단편 3 GV Ⓖ 76 min
2	13:00-15:00 [경쟁:한국독립SF] 단편 2 GV ⑮ 70 min	13:10-15:23 [춘천의 시선:SF스펙트럼] 단편 3 GV ⑫ 63 min	13:30-16:08 [춘천의 시선:SF스펙트럼] 오마주 GV ⑫ 108 min	13:30-15:04 [춘천의 시선:국제SF] 로봇 브라더 ⑫ 84 min	13:30-14:56 [SF 클래식] 로보트 태권브이 Ⓖ 76 min
3	16:00-18:03 [경쟁:한국독립SF] 단편 4 GV ⑮ 73 min	16:30-19:56 [춘천의 시선:다큐 포커스] 2차 송환 GV ⑫ 156 min	17:00-19:37 [춘천의 시선:SF스펙트럼] 단편 2 GV ⑫ 107 min	16:00-17:57 [경쟁:국제독립SF] 단편 1 ⑮ 107 min	16:00-17:33 [춘천의 시선:SF스펙트럼] 단편 1 ⑫ 83 min
4	19:10-21:46 [SF 클래식] A.I. ⑫ 146 min	21:00-22:40 [춘천의 시선:국제SF] 알고리즘의 편견 ⑫ 90 min	20:30-21:57 [경쟁:한국독립SF] 단편 3 ⑮ 77 min	19:00-20:26 [경쟁:국제독립SF] 감춰진 세계 Ⓖ 76 min	
5				21:30-23:16 [춘천의 시선:다큐 포커스] 망명자들 ⑫ 96 min	



〈코스모스〉 명예시민사진기자 **하성재**





근화동 강변에서 바라본 멋진 노늘 송혜지

지는 해가 강가에 비친 모습이 일품인 곳입니다. 일 년에 몇 주만 볼 수 있다는 분홍빛이 도는 노을입니다. 이 아름다운 풍경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요.

신매리의 새벽 풍경 김응걸

어느 새벽 자전거길을 달리다가 너무나 한가롭게 낚시하는 강태공과 뜨는 해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쉼이 필요할 때… 백현주

눈이 부시도록 햇살이 좋은 어느 가을날 나는 소양댐에 올랐다. 드넓은 호수를 하염없이 바라보며 물멍을 해 본다. 복잡했던 머릿속이 비워지고 마음엔 여유가 생긴다.



산뜻한 가을아침 라이딩 전민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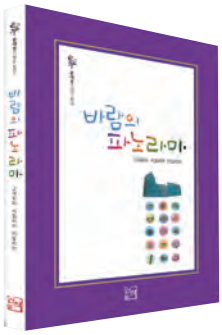
가을아침,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약사천을 지나 봅니다.



매일 새로운 감동 유성열

태백교에서 시내 방면으로 바라본 공지천 산책로입니다. 9월의 어느 날 붉게 타오른 가을하늘 풍성한 추석을 말해주는 듯 합니다. 항상 같은 것 같으면서도 매일 새로운 감동이 있어요.

이 달의 책



바람의 파노라마

윤재영 지음 | 도서출판 산책 펴냄 | 244쪽 | 1만5,000원

'고대로마 시칠리아 이탈리아'라는 부제가 있는 이 기행 수필집은 고대 로마의 유적지와 이탈리아를 여행하며 떠올렸던 이야기가 시간과 함께 잘 엮여 있다.
고대 그리스가 신들의 놀이터였다고 하면, 고대 로마는 인간의 전쟁터였다. 저자는 고대 로마의 건국에서 공화정 그리고 제국의 흥망, 크리스천 시대였던 중세기 르네상스 그리고 근현대까지 다양한 역사 이야기를 재미있게 펼쳐 놓는다.
달이 차고 지고 날씨가 변하듯, 자연의 순리는 동서고금을 통해 반복되고 있다. 저자는 이천 년 전의 이야기를 엊그제처럼 가까이 느껴지게 그려 놓는다.



춘천 예술인 지도 vol.1

춘천문화재단 펴냄 | 166쪽 | 비매품

춘천에 거주하는 전문 예술인을 만날 수 있는 책이 나왔다.
춘천문화재단은 춘천문화아카이브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춘천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에 대한 소개와 그들이 살아가고 활동하고 있는 동네에 대한 정보를 함께 수록한 인명사전이자 지도책을 펴냈다. 이 책은 두 차례에 걸친 공개 모집을 통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예술인과 예술단체의 자발적 참여로 만들어졌으며, 예술가들의 위치 정보를 중점적으로 시각화 작업을 한 국내 최초의 기록물이다.
238명의 예술가 정보가 실려 있으며 향후 업데이트를 거쳐 지속 발간될 예정이다. 책자에 담긴 예술인 정보는 춘천문화카이브 홈페이지(https://arch.cccf.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삶이 물었고 영화가 답했다

이안 지음 | 담앤북스 펴냄 | 300쪽 | 1만7,000원

춘천SF영화제 운영위원장이자 영화평론가, 프로듀서, 프로그래머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이안이 40여 편의 영화를 통해 삶에 관한 물음에 답했다.
총 4부로 나뉘어 있는데 1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는 영화 '미나리' 등 6편의 영화를 통해 생과 사에 대해 이야기한다. 2부 '세상 가장 낮은 목소리', 3부 '생명을 품는 마음', 4부 '무한한 인연, 희망의 연꽃' 등 각 주제에 맞는 '눈먼 자들의 도시', '효자동 이발사', '승리호', '컨테이젼' 등 다양한 영화를 선별해 상황에 맞는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영화 추천 부탁을 받을 때마다 곤란한 적이 많았다던 저자 이안. 이 책은 월간 '통도'에 매달 영화를 소개했던 글을 모아 담았다.

잘 키우고… 잘 만들고… 체험하고 '6차산업'으로 농업 결실 2배 '업'

친환경 우렁이 쌀부터 배추, 들깨, 감자, 옥수수, 더덕, 토마토, 고추, 파….
물안골농장의 신수현·박명순 농부는 10여 가지 이상 다양한 농작물을 키운다. 거기에 토종꿀을 치고 장도 담그며 한옥 펜션 운영까지. 2월 초 잠시 여유 시간이 있을 뿐, 1년 내내 쉼 없이 돌아가는 물안골농장을 찾았다.

글 **안선희** · 사진 명예시민사진기자 **이원일**

10여 가지 이상 다양한 농작물 재배

봄이면 예쁜 벚꽃 터널이 만들어지는 부귀리. 물안골농장은 그 벚꽃 터널이 끝나는 물안마을 입구에 있다. 태풍 '힌남노'가 예고돼 있던 9월 5일 밤. 신수현 씨는 토종벌꿀통이 바람에 넘어질까 밤새 고정작업을 했다. 다음 날엔 추석을 앞두고 수확한 친환경 햅쌀 4kg 250박스를 서울의 한 보험회사로 직접 배송한다고 했다. 거기에 직접 농사를 지어 수확한 들깨로 짠 들기름으로 추석 선물 세트도 만들었다. 들기름은 춘천시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서 저온 압착해 포장해 온 것이다.

1:1 직거래 고집…거래처 발로 뛰며 찾아

물안골농장은 대부분 친환경 무농약 농업을 고수한다. 농작물도 고객과 1:1로 만나는 직거래 위주다. 물안골농장에서 짠 들기름 정도만 신북농협 로컬푸드직매장과 춘천지역먹거리직매장에 내놓는다.

"20년 전 가락동으로 고추를 수확해서 60박스를 올렸는데, 한 박스당 1,000원이 나왔다고 전화가 와서 돈을 더 입금하라고 한다. 그때 결심했다. 절박한 심정으로 절대 버리는 한이 있어도 가락동으로 농산물을 올리지 않겠다고."

신수현 씨의 SNS에 있는 말이다. 이때 이후 신수현 씨는 발로 뛰는 영업을 시작했다. 쌀농사로 시작했지만, 직거래를 하려면 1년 내내 농산물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농업 작물을 다양화했다. 주 고객이 50~60대라 건강에 관심이 많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더덕과 장뇌삼, 토종꿀 등도 키우기 시작했다.

고객에게 필요한 농산물을 맞춤 생산하는 것은 물론 SNS 홍보나 다양한 모임 등을 통해 직접 홍보하며 거래처도 늘려 나갔다. 보험설계사가 고객에게 선물로 주는 아이템에 친환경 농산물을 포함시킨 것도 신수현 씨가 발로 뛰며 얻어낸 성과다.



물안골농장 한옥펜션



물안골농장의 들깨밭에 선 신수현·박명순 농부

매년 수천명 찾는 체험농장도 운영

코로나19로 중단됐지만, 물안골농장은 체험농장으로도 유명하다. 춘천뿐 아니라 서울 등 수도권에서 1년에 5,000~6,000여 명이 방문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왔다.

"친환경 농산물을 아무리 홍보해도 믿음을 주기가 어렵지만, 우렁이가 사는 논이나 그 속에서 뛰어다니는 메뚜기를 잡으며 체험해 보면, 자연스럽게 친환경 농사를 알게 됩니다. 체험활동을 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다시 방문하고, 가족까지 함께 오면서 입소문이 나는 거죠."

물안골마을은 2002년 농림부에서 공모한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에 응모하여 선정, 그 사업비로 벚꽃길을 조성해 지금은 전국에서 유명한 벚꽃길이 만들어졌다. 조경기사로 일했던 신수현 씨가 벚꽃길 조성 아이디어를 내 이를 실행에 옮겼고, 물안골마을은 유명한 체험마을이 됐다.

물안골농장은 2013년부터 개별적으로 김치나 장 담그기, 감자 캐기, 토마토 따기, 두부 만들기 등 계절별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용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시작 쉽지 않았지만 결과물 뿌듯"

물안골농장은 2019년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로 선정됐다. 잘 키운 농산물로 제품을 잘 만들고, 체험문화까지 잘 즐기는 '6차 산업'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모습이다.



물안골농장의 배추밭

9월까지 들기름 세트를 만들어 판매하고, 11월부터 김장밀키트(절임배추+양념)를 판매한다. 이를 위해 8월 배추 2만 포기를 심었고 양념에 들어가는 쪽파와 마늘, 갓, 고추 등의 속재료도 다 물안골농장에서 키운다. 집에서 아이들 등 가족과 쉽게 김장김치를 담글 수 있다.

신수현 씨는 "친환경 농사를 짓고, 직거래를 하고, 가공품까지 만들면서 소득이 2배 가까이 늘었어요. 시작할 때 쉽지 않았지만 그만큼 성과가 좋아요"라며 농업의 나아갈 길을 제시했다.

물안골농장

북산면 부귀로 839-7
주문전화 : 010-8959-0576

물안골 농장
SNS 바로가기



1



2



3

일회용 플라스틱이 예쁜 가구로 변신

배달용기 자원순환 캠페인 '새삶스런 벤치'

시민이 분리수거한 일회용 플라스틱을 의자와 탁자 등 가구로 다시 만드는 플라스틱 자원순환 캠페인이 진행됐다. 춘천사회혁신센터와 춘천시마을자치지원센터가 지역의 여러 단체와 함께 힘을 모아 벌인 캠페인이다. 배달용기 재활용의 가능성에 대해 함께 고민해봤던 '새삶스런 벤치' 캠페인을 소개한다.

글 **김선순** · 사진 **춘천사회혁신센터**

1. 배달용기가 의자로 예쁘게 재탄생 됐다.
2. PP, PE 재질의 페트병 뚜껑은 재활용하기가 좋다.
3. 페트병 뚜껑을 재활용함에 넣는 귀여운 어린이

버려진 배달용기 예쁘게 재탄생

생수병, 배달용기 등 일회용 플라스틱은 한번 쓰고 버려지기 위해 만들어진다. 우리나라에서 연간 21억 개의 일회용 플라스틱 배달용기가 버려지고 그 중량은 11만 957톤에 달한다. 이 결과를 적용해보면 춘천에서도 매일 8톤이 배출된다고 추정할 수 있다.

춘천사회혁신센터와 춘천시마을자치지원센터는 지역에서 버려지는 플라스틱 배달용기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고 자원순환을 실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버려진 플라스틱을 재활용해 가구로 만드는 '새삶스런 벤치' 캠페인을 벌였다.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퇴계동 통장협의회 등 18개 단체가 함께 버려진 배달용기를 수거했다. 원래 목표 양은 1톤이었는데 퇴계동 통장협의회와 퇴계동주민자치회에서만 1톤을 넘게 모아 와 총 2.3톤의 배달용기를 수거할 수 있었다.

"배달용기는 음식물이 많이 남잖아요. 그런데 찌꺼기가 남아 있으면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찌꺼기가 있는 배달용기는 통장님들이 집에서 다시 다 세척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어요."

퇴계동 통장협의회 이승은 회장은 비록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예쁜 가구로 재탄생된 모습을 보니 너무 뿌듯하다며 퇴계동 통장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퇴계동 주민자치회 박영호 부회장은 "재활용해서 만든 의자와 탁자 13개를 퇴계동에 다시 돌려주신다고 해서 내년에 준공 예정인 퇴계동 행정복지센터에 전시하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주민들이 자원순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시청 로비에서 결과공유회 열려

8월 16일부터 25일까지 춘천시청 청사 1층 로비에서 '새삶스런 벤치' 결과공유회가 있었다. 결과공유회에 참석한 육동한 시장은 플라스틱 수집에 참여한 18개 단체에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만든 감사패를 전달하며 춘천시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자원순환을 위해 더욱 힘쓸 것을 약속했다.

이번 캠페인은 국내 최초로 읍·면·동에서 배출되는 일회용 플라스틱 배달용기를 주민들이 수거, 가공하여 의자와 탁자 등 지역자원으로 만들어 다시 읍·면·동으로 돌아가는 자원순환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새 삶을 얻은 플라스틱이 자연생태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지역자원으로 다시 태어나게 됐다는 점도 의미가 깊다.

시민이 직접 자원순환에 참여한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일상 속 지속적인 자원순환 실천이 이루어지고 시민이 자원순환에 더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기를 바란다.





가구로 재탄생돼 시청 청사에 전시된 폐플라스틱(위)과 배달용기 수거에 앞장선 퇴계동 주민자치회 박영호 부회장과 통장협의회 이승은 회장

'새삶스런 벤치 참가 단체'

주민자치회	소양동, 약사명동, 후평2동, 퇴계동
통장협의회	퇴계동
마을공동체	인성나무채움(사우어린이집)
마을교육돌봄공동체	춘천어깨동무사회적협동조합, 다행이다
기관/단체	춘천시자원봉사센터, 퇴계성당, 만천성당, 소양강댐효나눔복지센터, 한살림생협, 아이쿱생협, 카페 오늘산책, 춘천인형극제, 국립춘천숲체원



공격적 제품 개발… 하수관 전문기업 '우뚝'

건장한 남성이 들어가고도 남을 만큼 넉넉한 크기의 대구경 2,000㎜ 하수관. 동춘천일반산업단지에 위치한 월드케미칼이 국내 최초로 개발, 정부조달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하수관이다. 하수관 제조 전문기업으로 공공기관 매출로만 연 40억원을 기록하고 있는 강소기업 월드케미칼을 찾았다.

글 **안선희** · 사진 **이원일** 명예시민사진기자

춘천 제2공장 착공식

월드케미칼은 지난 7월 19일 춘천 제2공장 착공식을 열었다. 신축공장은 지금 공장 바로 옆 대지 4,959㎡에 건축면적은 1,320㎡ 규모로 지을 예정이다. 내년 하반기 제2공장이 완공되면 1, 2공장 규모가 1만2,000㎡에 이르게 된다.

2006년 4월 태백파이프로 설립, 2009년 경영진이 교체되며 월드케미칼로 상호를 변경한 데 이어 2017년 지금의 동춘천산단 내 춘천공장을 준공하고 5년 만의 일이다.

"제품 개발·판로 개척엔 공격적"

월드케미칼이 비교적 짧은 기간에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월드케미칼만의 독자적인 제품과 각종 특허 등 차별화된 기술력 덕분이다. 2011년 설립된 기업부설연구소를 중심으로 구경 100㎜부터 2,000㎜ 하수관까지 다양한 구경의 하수관을 개발해 K마크 인증, 조달우수제품 인증을 받았다. 특히 하수관 접합부 이탈 방지 및 강도 향상을 위한 특허를 획득, 하수관 누수를 최대한 방지하는 월드케미칼의 제

품군은 싱크홀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한다. 또 기존 하수관이 콘크리트나 금속 등으로 제작되던 것을 친환경 원료인 폴리에틸렌(PE)을 사용하는 등 차별화를 시도했다.

코로나19 여파로 건설공사까지 위축돼 경기가 어렵지만, 월드케미칼은 관공서 납품만 고수하고 있다. 박재희 대표이사는 "매출 규모도 중요하지만, 민간 건설사에 납품했다가 어려움을 겪는 회사를 여러 번 봤습니다. 우리 회사는 내실에 더 중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제품 개발이나 판로 개척은 공격적으로 하지만, 실질 매출은 안정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직원 복지·사회 공헌에도 두각

각종 기술인증과 더불어 월드케미칼은 직원 복지와 사회 공헌도 주목할 만하다.

금연 수당, 대리운전비, 가정 긴급 생활자금(최대 3,000만원 무이자) 대출, 상해 실손보험, 자기 개발비, 운전자 보험, 각종 자격수당, 대학이나 대학원 학비 지원 등 다른 기업에서 보기 어려운 직원 대상 복지혜택이 다양하다. 직원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면 회사에서의 능률은 자동적으로 올라간다는 것. 박 대표는 회사가 이윤이 덜 남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더 큰 이익으로 돌아온다고 설명했다. 매년 회사 야유회와 워크숍 등도 개최하고 있으며 여직원 전용 워크숍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이 이어져 월드케미칼은 가족친화인증, 성과공유기업 인증,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등으로 선정돼 있기도 하다.

춘천과 태백 등 월드케미칼과 연고가 있는 지역뿐 아니라 고성군과 양구군 등에 장학금을 기탁하고 있다. 또 기업의 특성을 반영, 사랑의 집짓기 등에 하수관을 후원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여러 기관과 단체에 마스크를 기부하는 등 사회 활동에도 진심인 기업이 바로 월드케미칼이다.

"춘천~홍천 간 국도 5호선 4차선 확장 시급"

춘천에 있는 기업은 대부분 회사의 어려운 문제로 '인력난'을 꼽는다. 월드케미칼도 마찬가지다. 박재희 대표는 동춘천



1



2


3

1. 회사 전경 2. 박재희 대표이사 3. 하수관 매립 공사 현장

산단이 발전하기 위해서, 또 인재를 구하기 위해서는 춘천~홍천 간 국도 5호선 4차선 확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원창고개를 넘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람들이 동춘천산단을 멀다고 생각합니다. 퇴계동에서 15분이면 오는데, 멀다며 면접조차 오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요. 일을 해 보지도 않고, 제조업을 멀리하는 경우도 있어 안타깝습니다"라며 월드케미칼이나 동춘천산단에 대한 관심과 응원을 당부했다.

월드케미칼

동산면 원무동길 82-5 동춘천산업단지 ☎ 256-4884
www.okunion.co.kr

춘천
문화 지도
#22

청소년을 위한 맡겨놓은 카페

요즘 청소년들은 카페를 많이 간다지요?
맡겨놓은 카페는 청소년(14~19세)이 음료값 부담 없이 카페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선배 어른이 청소년의 음료값을 미리 지불해 놓은 카페예요.
청소년을 응원하는 마음을 카페에 맡겨놓은 거지요.
이곳의 주인장들은 선배 어른과 청소년의 매개가 되어 다정한 공간을 내어준답니다.
QR을 찍으면 맡겨둔 음료가 몇 잔 있는지, 카페 이용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춘천시마을자치지원센터
070-4177-6527

› 웹페이지
https://ccycafesospeso.modoo.at





청소년을 위한 맡겨놓은 카페

1. **커피인** | 신북읍 율문길 81-4 **T.** 033-911-8889
2. **인더드림** | 영서로 2750 **T.** 0507-1406-6325
3. **레귤러커피바** | 당간지주길 74 **T.** 0507-1333-4650
4. **카페희랑** | 삭주로 55-2 **T.** 0507-1408-5734
5. **카페D뜰** | 삭주로 145번길 46 **T.** 010-9082-8489
6. **시나본 춘천 장학점** | 동면 춘천로 447 1층 **T.** 033-244-2220
7. **그레이빌** | 후석로440번길 63 **T.** 010-5883-9303
8. **카페챔프** | 춘천로 333 2층 201호 **T.** 010-6309-8777
9. **오늘산책** | 정원안길33번길 8-5 **T.** 0507-1347-8668
10. **올훼의 땅** | 옥천길 25 1층 **T.** 0507-1331-3267
11. **애쉬커피바** | 중앙로68번길 38 **T.** 0507-1414-7199
12. **카페오픈베타** | 중앙로 112-1 1층 **T.** 0507-1345-6523
13. **와플대학 춘천중앙로** | 중앙로 123 1층 **T.** 033-251-7774
14. **소양하다** | 효제길 37번길 3 **T.** 010-5690-6314
15. **프롬마인드** | 백령로105 **T.** 033-252-8088
16. **카페담** | 복골길6번길 2 1층 **T.** 010-6894-1300
17. **카페리오** | 후만로 116번길 34 1층 **T.** 033-252-8876
18. **748커피앤코** | 애막골길 19 1층 **T.** 070-4408-0748
19. **우림약선차** | 애막골길 16번길 18 **T.** 0507-1369-0904
20. **커피레시피** | 동내면 거두택지길 57 1층 **T.** 033-261-2636
21. **화양연화** | 후석로 46번길 11 **T.** 010-9125-3688
22. **카페포레스트곰곰** | 공지로 258 1층 **T.** 033-262-1277
23. **카페WLCM** | 공지로 255 커먼즈필드 춘천 1층 **T.** 033-912-5000
24. **카페방송길86** | 방송길 86 **T.** 033-241-5601
25. **카페석사** | 퇴계로 207 1층 **T.** 070-4177-0777
26. **로뎀카페** | 영서로 2151번길 30 **T.** 033-259-3028
27. **파피루스** | 안마산로 21 **T.** 0507-1346-4055
28. **데이빗하우스** | 스무숲길 1 명림빌딩 **T.** 033-263-8999

* 다음 춘천문화지도는
'춘천의 근대문화유산'입니다.

E-mail_ bomnae1993@gmail.com

Illustrated & Edited by 디자인맑음

매서운 눈썰미로 두 번의 화재 초기 진화

민가 화재 막아낸 성영규 씨

아프리카돼지 열병을 차단하기 위해 춘천의 돼지 농가 8곳을 다니면서 방역 차량 운전자로 일하는 성영규 씨(44 · 동면). 그가 지난 8월 30일 민가에서 발생한 화재를 방역 차량으로 초기에 진화했다.

평소처럼 방역을 위해 거점소독 세척시설에서 차량에 급수를 하던 중 그곳의 폐쇄회로 TV에 비친 연기를 발견했다. 화재를 직감하고 급수를 중단하고 방역 차량을 이용해 달려간 성 씨.

불이 막 시작된 주택에 방역 차량으로 물을 뿌려 큰 화재로 번질 피해를 미연에 방지했다. 화재를 진압할 때 전선이 끊어지면서 감전 등의 위험이 있었지만 거리를 두고 물을 뿌렸단다. 민가가 없는 곳이라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는 상황에서 성 씨가 조기에 불을 끈 것이다.

성 씨는 지난 4월에도 방역 차량을 이용해 불을 끈 적이 있다. 자신의 방역 지역이 아닌 곳을 지나가다 마주한 사북 오탄리 주택 화재. 담당 지역이 아니지만 곧바로 달려가 방역차를 이용해 불을 껐다.

올해 들어 두 번의 화재를 조기에 진화한 것이다. 연기를 발견할 때 성 씨는 나름의 판단을 한다. 하얀 연기는 쓰레기 등을 소각할 때, 검은 연기는 화재로 직감하고 달려가 불을 껐다.

성 씨는 주어진 업무뿐만 아니라 일하고 있는 곳의 기계나 돼지 농가 통제초소에 잔고장이 나면 먼저 달려가 수리를 한다. 그래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칭송이 자자하다. 화재진압은 자신이 그곳에 있었기에 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말한다.

큰불로 번지기 전에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결코 용감해서가 아니라는 성 씨. 우리 주변과 이웃들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말한다.



방역 차량 운전자로 2년 차 일하고 있는 성 씨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일도 하고 있다. 근무하지 않을 때 적십자 활동과 함께 안전강사로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재난심리 상담가로 피해를 입은 이웃들에게 사회적 지지 상담과 함께 전문치료센터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꿈을 가지고 있다.

긍정의 아이콘으로 살면서 어려움을 이겨내며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자신의 일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부모님과 가족에게 감사를 전하는 성 씨. 앞으로도 이웃은 물론 우리 사회에 작은 등대로 살고 싶다는 그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

글 · 사진 **이종현** 명예시민기자

막국수닭갈비축제 덕분에 춘천과 인연

'제왕수탉 힘찬 울림' 초대전 작가 이승철

3년 만에 대면 축제로 돌아온 2022 막국수닭갈비축제의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 춘천시가 한국미술협회 춘천지부의 도움으로 '제왕수탉 힘찬 울림' 초대전을 8월 19일부터 31일까지 춘천미술관에서 개최했다.

62년생, 호랑이띠.

닭을 그리는 작가 이승철은 앳되다는 표현이 실례되지 않을 만큼 표정과 기운이 맑았다.

미리 전시를 감상했던 지인들의 호평을 전해 들은 터라 기대감이 컸는데 실제로 내가 만난 이승철은 자신의 작품을 설명하는 데 적극적이었고 그의 작품 역시 고개를 끄덕일 만했다.

그의 손에서 탄생한 수탉은 사실적 묘사를 지양한 왜곡된 형태와 과감한 원색을 입고 있었는데 오랜 시간 방송국 미술팀장으로, 컴퓨터그래픽 디자이너로 활동한 그의 이력과 깊은 연관이 있어 보였다. 작품의 스펙트럼은 우리 민화와 팝아트, 야수파의 넓은 경계에 아우르고 있으며, 갤러리를 찾은 관객에겐 회화와 설치미술 사이에서 작가가 고심한 흔적을 경험하게 한다. 최근 리모델링으로 넓고 깊어진 춘천미술관의 전시공간 또한 그런 제왕수탉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전업 작가를 선언한 지 15년.

작가는 다소 상기된 얼굴로 갤러리 1, 2층을 가득 채운 45점의 작품을 모두 설명했는데, 카메라 앞에서 수줍어하는 이승철 작가의 모습이 의외였을 정도로 기운과 에너지가 여전히 넘쳤다. 제왕수탉처럼 말이다.

그는 작업을 통해 삼국유사 등의 기록에서 귀하고 상서로운 존재였던 수탉을 왕관 쓴 모습으로 캐릭터화하여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예술가로 자리 잡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축제의 성공을 기원하는 춘천시의 헌식이 작가에겐 예술적 고취와 저변을 확대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 나 역시 춘천시민의 한 사람으로 덕분에 수준 높은 전시를 감상한 것으로 감사했다.

좋은 인연을 맺게 되었으니 발전된 모습으로 다시 뵐 날을 고대한다며 이승철 작가는 자손 번창을 상징하는 제왕수탉의 드로잉 한 점을 굳이 아들 셋을 둔 나에게 선물한다.

작품 감상과 구매가 가능한 이승철 작가의 작업실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군하로 77번길 50
010-4137-5977
leeseungchul0525@gmail.com

글 · 사진 **양희중** 명예시민기자

춘천에 이런 곳이?

“철도모형의 매력에 빠져보세요”

철도모형 공방 ‘클라이네스 분더란트’

서울에서 20여 년간 근무하던 금융회사를 그만두고,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2018년 독일로 떠난 철도모형 공방의 권문혁 대표는 독일에서 우연히 접한 철도모형 세상에 푹 빠져 인생의 2막을 철도모형과 함께 시작했다. 코로나로 인해 작년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경춘선이 있는 춘천 후평동에 철도모형 공방을 열었다.

철도모형은 유럽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취미 중 하나지만 국내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들어 전국의 철도 애호가들이 먼 걸음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온다. 유럽 철도모형 디오라마 제작 및 자동 제어 시스템 설치에 특화되어 있고, 유럽 다수의 전시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자동화 운행 시스템과 동일한 방식으로 기차 및 트램이 운행되는 15m x 1.2m 규모의 디오라마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작했기 때문이다.

아날로그 방식으로 기차가 단순히 철도만을 도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장치의 신호에 맞춰 기차역에 들어서면 플랫폼에 정확히 정차하고, 다른 기차가 노선 앞에 있다면 이를 감지하며 기차 스스로 다른 철로로 방향을 튼다. 건물 내에는 조명이 있어 불을 끄면 아름다운 야경이 나타난다. 모형 배치만 있는 것이 아닌 실제 기차처럼 움직이고 유럽의 지역을 그대로 옮긴 것이 큰 특징이다.

권 대표는 철도모형을 ‘종합예술’에 빗대어 표현했다. 기차 모형의 안을 뜯어 모터와 디지털 신호 수신기를 다루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공학의 기초를 접하고, 바위나 언덕 같은 자연물을 만들 땐 조소 등 미술에 재미를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독일에서는 이미 철도모형 작업이 보편적인 취미이며 독일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철도모형을 가지고 놀며 공학에 관심을 가진다고 한다. 이처럼 단순한 감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직접적인 제작과 미니어처 작동원리 이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들을 지역사회에 알리고 싶은 마음에 권 대표는 여러 가지 추후 계획을 가지고 있다.



클라이네스 분더란트의 철도모형

“처음에는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원데이 클래스, 입문반 강좌를 강의하려는 마음으로 공방을 오픈했는데 앞으로는 디오라마 주문 제작도 하려고 해요. 또 이동식 철도모형 디오라마를 만들어 밖으로 나가 춘천시민들에게 먼저 보여드리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라며 언제든 편안하게 공방에 와서 작은 미니어처도 만들어 보고 여러 가지 정보도 함께 나누자고 했다.

클라이네스 분더란트

- 서부대성로 239번길 49-3 2층
- 0507-1352-4342
- 입장료 3,000원(초등학생 이하 1,000원)

글 **이재민** 명예시민기자 · 사진 **클라이네스 분더란트**

춘천 콜택시 하면 역시 '스마일콜택시'







전화와 앱으로 모두 이용이 가능한 스마일콜택시

춘천시민과 상생하는 '스마일콜택시'

지역마다 그 지역을 대표하는 콜택시가 있다. 춘천은 스마일콜택시가 있다.

춘천 스마일콜택시는 다른 지역의 브랜드콜택시와는 다르게 개인택시와 법인택시가 하나로 통합되어 보다 빠르게 고객에게 다가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택시 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스마일콜택시가 출범하기 전에는 택시 호출료가 있었지만, 정부의 브랜드 택시 활성화 정책으로 춘천에서도 스마일콜택시가 2015년부터 운영에 들어가면서 호출료를 받지 않고 있다.

스마일콜택시는 스마트폰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택시 이용자를 위해 손쉽게 전화로 택시를 부를 수 있다. 아직은 전화가 편한 중노년층이 스마일콜을 선호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 젊은 층에서는 전화보다는 자동 결제가 되는 앱을 이용하는 것을 선호하는데 스마일 콜 역시 편리한 앱이 있다. '티머니온다'와 협약으로 '자동결제시스템'을 도입한 '앱'을 통하여 택시 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처럼 지역 고유의 비영리 단체인 스마일콜택시는 이용자의 편의성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춘천시민과 상생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스마일콜택시를 많은 시민이 애용해 주기 바란다.

스마일콜택시 ☎ 913-8282, 7777

글 **이재민** 명예시민기자



춘천의 가을밤



거두리, 인형의 거리

그러면 이제 갑시다
지금 저녁은
수술대 위에 에테르로 마취된 환자처럼
하늘을 배경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 T.S 엘리엇 'J·A·프루프록의 연가' 첫 부분

빌딩 사이로 난 골목 하늘을 쳐다보라. 유령 같은 구름이 하늘에 떠, 어두운 골목을 기웃이 들여다보고 있지 않은가.

마취된 구름일까.

도심 변두리의 저녁은 한순간의 정적이 밀물처럼 밀려온다. 자동차 전조등조차 숨을 죽인다. 마치 태풍의 전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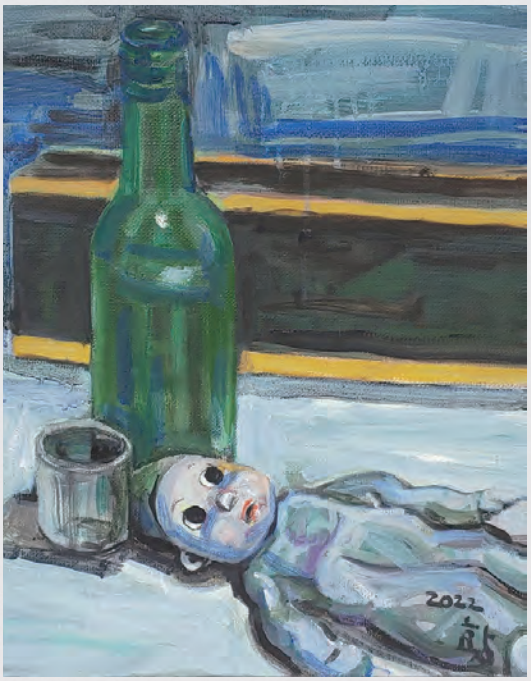
이내 석양은 곧 자신의 붉은빛을 목숨처럼 거둘 것이다.

나는 골목 모퉁이를 돌아간다. 모퉁이 건물 문 앞에서 등을 보이고 서 있는 두 사람의 실루엣이 안쪽을 들여다보고 있다.

저쪽 유리문 안쪽에 한 인형이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앉아 있다. 황효창! 그는 인형만 40년 넘게 그려 온 우리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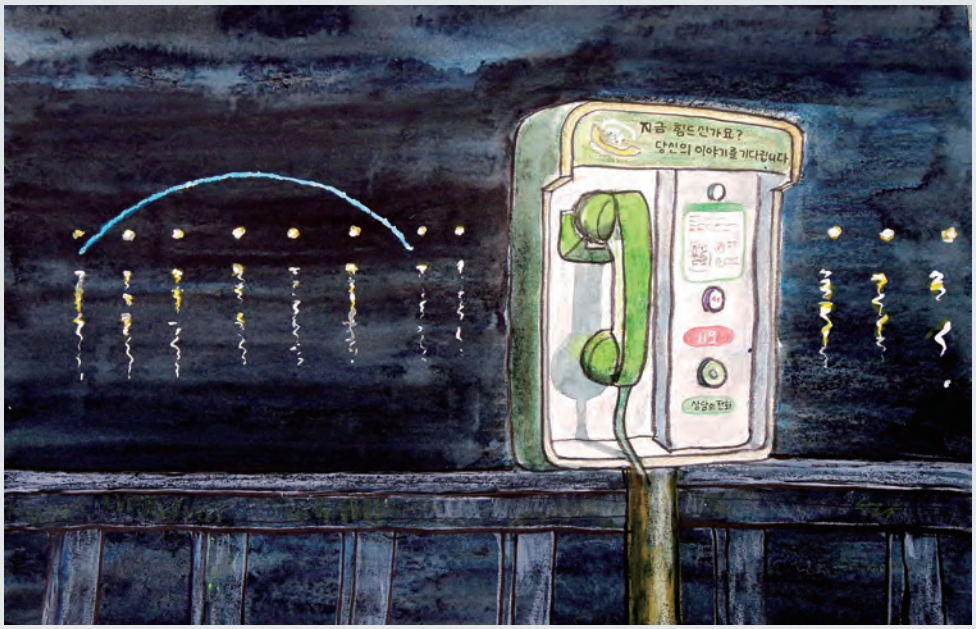
거두리 골목



황효창 〈만취〉



개나리미술관의 황효창 초대전에서



이형재 그림 〈소양1교 상담전화〉

원로작가다.

외지고 한적한 개나리 미술관. 황효창은 인형 그림 20여 점을 하얀 벽면에 걸어놓았다. 그리고 하염없이 밖을 내다본다.

누가 그림을 보러 올까.

그런데, 놀랍다.

거의 절반가량 빨간 딱지가 붙어 있다. 핏방울 같은 동그란 딱지. 그것은 그림보다 더 확대된다.

"그림이 꽤 나갔어."

"그래?"

"응, 그림값이 높은데도. 벌써 아홉 점이나 나갔어."

황효창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표정이다.

"앞으로 더 나가지 않을까요?" 정현경 관장이 희망을 품는다.

"오늘은 두둑해. 한 잔 마시자우."

황효창 인형작가는 의기양양하다. 늘 함께 다니는 그의 부인이 조용히 웃는다. 연필그림으로 선풍적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이희용 작가도 곁에서 소리 없이 웃는다.

그림은 팔려야 한다. 그래야 작가가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평생 그림을 그릴 수 있다.

비어있는 검은 동공, 마스크 한, 그것도 가위표가 뚜렷이 새겨져 있는, 침묵을 강요당한 침묵의 인형.

대체 황효창은 무슨 이유로 이토록 슬픈 자화상을 그리는 것일까.

암울한 시대의 고독한 시인 황효창.

팔리지 않을 그림만 그리는 지구인 아닌 외계인. 곤드레만드레 취해 쓰러진 인형. 그 인형의 눈물이 이슬처럼 맺힌다.

'만취'된 인형이 팔렸다. 놀라운 일이다.

사실 술을 자제해야 하는 황효창 작가는 그림으로나마 '만취'되고 싶었을지 모른다.

골목길은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은밀히 번성했던 기억들을 토해낸다.

그런 슬픈 인형의 이야기는 이제 마감되는 줄 알았다. 그러나 아니었다.

비정하고 비열한 시대는 늘 언제 어디서나 존재했다.

소양1교

황효창 화가와의 한 잔 술은 마음의 위안으로부터 시작된다. 우린 슬픔조차 곰삭힌 술 마시는 인형들이다. 한 잔의 술을 앞에 놓고 야금야금 마신다. 그만큼 이제 우리는





소양1교와 소양1교 인도

술을 이기지 못한다.

나는 황효창 화가와 헤어져 호수로 간다. 1933년에 놓인 소양1교. 북쪽 우두동과 남쪽 번개시장을 잇는 소양1교는 6·25 때 큰 전투가 벌어졌었다. 북이나 남이나 군인들이 많이 죽었다. 콘크리트 교각엔 깊게 파인 총탄 자국들이 아직도 자욱이 남아 있다.

아래쪽 소양2교는 야경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색색의 무늬가 수시로 변화한다. 빛기둥이 호수에 가멸히 잠겨 있다.

이제 소양2교는 자동차들의 넘치는 물결로 불야성이다.

그에 반해 소양1교는 한적하고 고즈넉하다. 일방통행로가 된 소양1교는 예전엔 그늘지고 어두웠었다. 지금은 사람이 편안하게 건너다닐 수 있는 인도가 만들어졌다.

다리 난간엔

'되돌릴 수는 없어도 다시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라는 글귀가 적혀 있다.

'마음의 문을 열면 또 다른 세상이 보입니다'

삶이 무겁고 버거워서 삶을 버릴까 생각하는 사람은 이 다리를 찾아온다고 한다. 그리고 꽃잎처럼 자신을 허공에 던진다.

언제부턴가 사람들은 이 다리를 '자살교'라고 불렀다.

자신을 버리는 비통과 절망의 다리이다. 그건 자살자에겐 엄연한 현실이다.

나는 초록전화기를 본다.

119

마지막 골목에 들어선 자신의 선택을, 어쩌면 따뜻이 다





소양2교

독여줄지도 모를 번호. 어떤 이는 슬픔으로 읽고, 어떤 이는 마음의 아늑함으로 그 숫자를 가슴에 새길 것이다.

돌고래 찾기 "희망"

문득!

밤하늘을 쳐다본다. 가을이다.

페가수스의 창이 떴다. 오른쪽으로 백조자리와 독수리자리도 보인다. 지구에서 16광년 떨어진 견우성은 칠월칠석날 여름밤에 직녀성과 만났다. 그날, 견우성은 유난히도 반짝였었다. 가을이 되자 그 별은 다시금 외로운 별이 되었지만, 견우는 늘 희망을 잃지 않는 1등성 별이다. 헤어짐은 절망이 아니다. 희망이다. 일 년이면 다시 만나리라는 기대가 견우에겐 있지 않은가.

그런데 유심히 근처를 살펴보니 희미한 그림자 하나, 숨어 있다.

돌고래다.

우린 얼마 전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보았다.

곤란한 처지나 난관에 봉착했을 때, 우영우의 마음속에 고래는 어김없이 나타난다. 그것이 하늘이건 바다건, 그 어디건 간에.

그리고 마침내 우영우는 해내고야 만다.

저 캄캄하고 깊은 하늘에 꿈을 가지고 헤엄치는 돌고래가 있다.

한 번만이라도 하늘의 돌고래를 보았다면 그 사람도 우영우처럼 희망을 품게 되지 않을까.

별에게 묻다

춘천의 밤은 별빛이다. 하늘의 별과 더불어 호수의 별, 먼 서면에 깜빡이는 별, 골목 어두운 길을 비추는 별, 아파트에서 새어 나오는 두런거림의 별들이 곳곳에 박혀 있다.

그리고 우리에겐 가슴속에 빛나는 별이 있다.

어느 날 나는 35세가량의 젊은 부부를 만났다. 4년 전, 그들은 타지에서 춘천으로 왔다. 춘천은 별처럼 아늑하고 반짝여요.

그만 춘천에 매료되고 만 그들은 춘천에서 직장을 얻고 정착했다. 시간이 나면 이들은 춘천 여기저기를 걷는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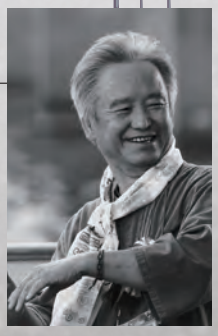
춘천은 늘 새로워요, 라고 그들은 말했다.

어느 아름다운 별에 도착한 느낌이에요. 하루하루가….

이들이 바로 희망의 돌고래가 아닐까.

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싶다.

네 스스로, 너를 위로하라. *



글 · 사진 최돈선

시인. 춘천의 골목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 그것이 궁금한 시인은 골목순례를 결심했다. 골목은 춘천시민의 가장 깊은 내면이며 참모습이기 때문이다.

대체로 가을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오후 3시의 황금들판> 종이 위에 색연필, 수채화물감. 정상명

가을이면 어쩌다 입속에 달라붙은 유행가가 진종일 달라붙듯이 나도 몰래 군침처럼 맴도는 말이 하나 있으니, '초추初秋의 양광陽光'이다. 고등 시절 국어교과서에서 그 말을 처음 만났다. 지금도 교과서에 실려 있는지 모르지만, 안톤 쉬낙의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었다.

우는 아이의 모습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정원庭園의 한 모퉁이에 놓여있는 작은 새의 주검 위에 초추의 양광이 떨어질 때, 대체로 가을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처음 그 말을 만났을 때에는 한자를 배우다 말다 거듭해서였던지라 언뜻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었다. 초추의 양광이 뭘까? 초나라에서 온 등불일까? 아리송하기만 했다. 나중에야 그것이 '초가을의 따뜻한 햇살'이라는 것을 알았고, 이후 가을만 오면 그 단어가 떠올랐다.

사물과 심경心境의 뛰어난 관찰자, 안톤 쉬낙의 그 산문은 또 얼마나 명문이었던가. 지금도 '우는 아이'를 만나면 그 산문이 떠오를 정도이니까, 문학의 힘은 생각보다 깊고 강하다. 동기 간 폭력은 물론이고 교사 폭력도 일상화되어 있던 60년대 말 70년대 초의 고교 시절이었지만, 교과서를 통해 마른 벌판의 샘물 같은 그런 멋진 '문학'을 접할 기회가 있었다는 것은 지금 생각해도 복이었다.

하지만 오늘 나는 만산홍엽滿山紅葉의 가을산에 단풍놀이 가는 '가을'도 있지만, 안톤 쉬낙의 산문에 담긴 '대체로 가을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에 주목하려고 한다.

가을은 슬프다. 이유가 없다. 그냥 슬프고 애잔하다. 모든 게 덧없이 느껴지면서도 아름답다. 가을 공기의 정령精

靈 속에 사람을 쓸쓸하게 하는 기운이 들어 있나 보다. 오죽하면 '가을을 탄다'는 말도 있을까. 왜 가을은 사람을 고즈넉하게 만들고, 처연하게 만들고, 평소에는 있는지도 모르고 살던 내면을 응시하게 할까. 아마도 모든 것이 고개를 숙이고 떨어지기 때문이 아닐까. 여름의 그 혹독한 폭염과 햇살에 온몸을 녹색으로 무장하고 생명의 힘을 내뿜던 나무들도 잎을 떨구기 시작하고, 못 말리던 풀들의 기세도 꺾인다. 이름을 아는 꽃들, 이름을 모르는 꽃들도 거의 다 사라지고, 허락도 없이 다른 나무를 감아 옥죄던 넝쿨조차도 더럽혀진 휴지처럼 오그라든다. '가을 들판' 자체가 곧 가을의 완전한 은유일진대, 익은 벼를 매달고 있는 황금들판은 가을의 아름다움 중에 으뜸가는 장관이다.

가을은 눈부신 최종 결산의 계절, 모든 일이 완수된 절정의 계절이다. 그런데도, 가을이 오면 '대체로 슬픈 것'은 왜일까?

최근에 알게 된 일이지만, 아득한 옛날, 나무는 본래 풀과 같이 키가 작은 난쟁이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난쟁이 상태가 싫어진 나무는 더 자라고 싶어서 오랜 세월 몸속에서 '리그닌Lignin'이라는 분자를 개발했다. 그 후 나무는 오늘날처럼 뿌리는 중력에 순종해서 땅속 깊이, 몸뚱어리는 중력을 거슬러 하늘 높이 뻗을 수 있게 되었다. '풀'에서 벗어나 원껏 자란 나무는 하늘이 얼마나 경탄스러웠을까.

이것은 자그마치 3억 5천만 년 전의 이야기다. '찬란한 우리 역사'가 겨우 반만년이니까 3억 5천만 년 전은 인간의 상상력 너머의 시간이다. 나무는 한 그루 한 그루가 중력에 저항하는 전사들처럼 마음껏 자라다가 수명이 다 되자 쓰러졌다. 그런데 문제는 쓰러진 나무를 분해시킬 균류나 곰팡이가 당시 '자연상태'에서는 마련이 되지 않았다. 나무의 진화가 세상의 진화를 너무 앞질러 간 것이었다. 쓰러져 죽은 나무들로 이 행성은 거대한 나무의 무덤이 되었다. 썩지 못한 목체木體는 땅속으로 가라앉았고, 수백 만 년 동안 '땅속의 숲'은 열과 암력으로 암석이 되었다. 페름기 말 시베리아 화산구에서는 화산이 폭발하면서 수십만 년 동안 용암을 분출했다. 마그마와 닿은 나무암석은 꺼질 줄 모르는 불덩어리가 되었다. 대기는 온난화되었고 바닷속 얼음 속의 메탄마저 방출되어 바다는 산소 부족으로 고요한 호수가 되었고, 지구는 몇 억년 동안 죽음의 행성이 되었다. 곧 페름기 말 대멸종이다.(내셔널지오그래픽, 〈코스모스—잃어버린 세계〉에서). 그런즉, '모든 대멸종의 어머니'라 불리는 페름기 멸종은 나무의 욕망이 부채질한 셈이다.

지금 예상보다 빠르고 확실하게 다가오고 있는 인류세의 여섯 번째 멸종은 이제는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운 인간의 행위로 인한 멸종의 행로다. 인류세는 '지구에 인간이 가한 충격'을 의미하기 위해 고안된 지질시대 용어다. 나무는 더 자라고 싶다는 리그닌만 개발했지만, 인간의 욕망은 끝을 모른다. 이전까지의 멸종은 모두 자연이 일으킨 일들이나 이번에는 우리 인간이 초래한 재난이다. 기후재앙을 전하는 뉴스들은 한결같이 '기후변화—최악의 흉조—온실가스 농도/해수면 관측 이래 최고'라는 말밖에 없다.

하지만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대멸종이 갑작스럽게 단기간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강 건너 불로 여기고 있으며, 그런 일은 내 시대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일을 무력하게 바라만 보고 있는 것 같다. 아마도 방법이 없어서일 것이다. 개인의 작은 실천이야 숭고한 일이지만 국가가 존속하는 한, '동시대적 견해'의 일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인류세에 맞이한 또 한 번의 가을이 깊어지고 있다.

글 최성각

새나 돌멩이 등 비인간에게 참회를 표하는 방식으로 환경운동을 한 생태주의 작가. '삼보일배'나 '생명평화' 같은 개념을 창출했다. 요산문학상, 교보환경문화상을 받았다. 최근에 『산들바람 산들 분다』, 『나무가 있던 하늘』을 펴냈다.



무대를 비추지만 자신이 빛나는 사람

시골소년, '조명'에 눈 뜨다

군대시절 강원도 출신 병사들은 흔히 감자나 비탈로 불렸다. 강원도 친구들은 그 별명을 싫어했지만, 내게는 자연친화적으로 들려서 흥미로웠다. 나이가 더 들고 강원도민으로 살게 되면서 자연을 생활의 근거지로 삼았던 사람들이 겪은 녹녹지 않은 삶의 무게를 알게 됐을 때 생각이 바뀌었다. 가령, 일곱 살 때까지 강냉이밥만 먹고, 봄에는 무당개구리 여름엔 뱀 가을엔 다람쥐 겨울엔 토끼를 잡아 용돈 벌이를 하던 강원도(홍천 서석) 소년의 삶을 '자연친화'로만 형용할 수는 없는 일이다. 연극연출가, 축제연출가, 조명디자이너, 무대디자이너, 협동조합 예술감독으로 무대 위의 삶을 살아가는 용선중 씨(51)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그랬다.

초등학교 2학년 때에야 마을에 전기가 들어왔다는 그의 얘기를 들었을 때, 무대공연에 필수요소인 '조명'과 그의 만남이 미묘하게 다가왔다. 처음 연극을 경험한 강원고 연극반 시절부터 천직처럼 그를 따라다녔던 조명은 서울예대 연극영화과 입시 때 톡톡히 한몫했다.

연극이 대중적 사랑을 받던 마지막 세대로 연극을 한다는 것 자체가 배곯기를 전제로 하던 시절에 연극판에서 버틸 수 있었던 힘은 어쩌면 생애 처음 30촉 전구가 환하게 밝혀질 때 소년의 뇌리에 각인된 황홀함이 아니었을까.

무대 안의 인생 35년

용선중 씨가 50세를 맞아 펴낸, 자신의 지난 삶과 앞으



로 삶이 함께 담긴 책의 제목은 『연극이여 영원하라』였다. '연극'만큼 그의 삶을 잘 집약하는 단어도 없지만, 연극이 대중들로부터 한참이나 멀어진 지금의 상황을 고려하면 '영원'은 일종의 반어로 읽힌다.

"드라마와 영화 콘텐츠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뿌려지는 지금, 경쟁력이 사라진 연극에 유일하게 남은 매력이 현장성인데 상대적으로 현장성의 가치는 오히려 강력해졌어요."

무대는 줄었지만 그만큼 강화된 현장성이 연극에 대한 그의 염원을 '영원'하게 하는지도 모른다.

학창시절 연극반 '파란자전거'를 시작으로 고교 졸업 후 결성한 극단 '혼팔이', 대학로로 옮겨 일한 계몽아트홀, '노찾사' 4집 투어를 함께 했던 '라이팅 콘체르토', 본격 연극패 '76극단', 3년간 별난 경험을 안겨주었던 '금강산 문화회관'을 거쳐 "내 연극의 고향"이라 서슴없이 말하는 춘천으로 돌아온 건 2011년. 그동안 무대를 떠난 적이 없었지만 그가 줄곧 매만진 건 조명기기였을 뿐, 꼭 하고 싶었던 연출의 기회는 좀체 오지 않았다. 그런 그에게 춘천은 기다렸다는 듯 연출을 맡긴다. 체호프의 작품들, 원로연극인들과 함께 한 '옹고집전'과 '이 대감 망할 대감', 셰익스피어의 리어왕을 현재로 소환한 '리퍼블릭·리어', 현대 부조리극의 대가 이오네스코를 판소리로 바꾸어낸 '코뿔소'까지, 차곡차곡 쌓인 그의 연출 레퍼토리의 본거지는 춘천이었다.

축제의 도시 춘천, 새로워지길 바라며

연극 인생에 소중한 길라잡이가 된 안민수의 『연극연출』과 다름의 가치를 일깨워준 말로 모건의 『무탄트 메시지』, 막연한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해준 미치 앨봄의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을 사랑하는 그. 타고난 게으름을 극복하기 위해 아침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그런 자신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그. 이상과 현실이 충돌할 땐 이상을 따랐고, 견디기 힘들 만큼 괴롭고 슬픈 일이 있을 땐 시간이 흘러가기를 기다렸다는 용선중 씨.

지난봄부터는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 무대감독을 맡아 오랜만에 직장인 모드로 돌아간 그에게 춘천이 남다른 것은 마임축제와 인형극제, 연극제 등 우리나라 공연 축제의 출발도시라는 점도 작용한다.

예술가라는 타이틀이 주는 무게가 버겁긴 하지만 그가 '공연예술가'로 자칭하는 배경에는 춘천과 축제에 대한 진득한 애정이 녹아 있다. 꼭 하고 싶은 축제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그가 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축제'라는 대답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든다.

"90년대 이후 전국적으로 수많은 축제가 만들어졌고, 이젠 매일 축제를 즐길 수 있을 만큼 흔해졌어요. 그러다 보니 축제들 간에 경쟁이 일어나고 축제의 본질이 사라지면서 사람들의 관심에서도 멀어지는 듯 보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모여서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고 교유하다가 뭘 하고 싶으면 하는 것 – 공연을 해도 좋고, 그냥 쉬는 것도 좋고요. 보통의 축제는 보여주는 사람과 보는 사람으로 나누어지는데 둘의 경계가 사라지고 둘이 함께 즐기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축제입니다. 자신의 공연이 끝나면 다른 팀의 공연을 관람하거나 도우미를 하고, 공연들이 모두 끝나면 삼삼오오 모여 공연 얘기를 나누고 그런 게 쌓여 다음 공연의 콘셉트가 되던 춘천마임축제의 초창기처럼요."

얼핏 초월적 화두처럼 들리는 그의 바람이 문화와 축제의 도시 춘천의 내실로 이어지는 데 큰 몫을 해줄, 지천명 이후 그의 '무대'를 기대한다.



글 하창수 **사진** 명예시민사진기자 **김영희**

소설가이며 번역가. 춘천으로 이사 온 지 30년, '경상도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을 때면 괜히 섭섭해지는 춘천 사람이다. '사람 이야기'는 춘천에 살면서 그가 알게 된 사람, 그 누군가의 얘기다.



석파령 옛길 가는길

당림리와 석파령 그리고 덕두원

당림리와 당숲 이야기

안보리에는 말을 관리하는 역驛이 있었고 이 역에는 역마驛馬 여러 마리가 항시 대기하고 있었다. 이곳 역마 가운데 나이가 가장 많은 말이 있었는데, 이 말은 석파령을 넘기 전 반드시 지나야 했던 당림리 당숲(당림堂林) 앞에 이르러서는, 부리는 마부의 말을 듣지 않으며 항시 등에 탄 사람과 짐을 땅에 부리도록 하며 꼼짝도 하지 않았다. 이 어 말은 당숲 안쪽을 향하여 머리를 조아리고서야 석파령을 넘었고 돌아와서도 똑같이 행동하였다고 한다.

말이 당 숲 안쪽을 향하여 머리를 조아린 까닭은 할미 말을 위해 그곳에 절을 하다 관원에게 맞아 죽은 어미 말을 기리기 위함이었다고 한다. 동물이지만 어미에 대한 효를 통해 인간에게 효성을 일깨워주었다. 마을에서는 마을 숲에 말의 사당을 지어주고 마을 이름도 마당리(馬堂里, 또는 마당골)라 불렀다. 말 사당인 마당馬堂이 있는 숲을 뜻하여 당림리堂(塘)林里가 되었다고 마을 어르신들은 말한다.

또한 마당리에는 1895년 을미년 춘천을미의병이 일어났을 때 마을 어른 이덕일이 친일 관찰사 조인승을 체포해서 석파령 너머 춘천 관아로 압송하여 처단토록 하였던 역사가 있으며, 춘천을미의병이 친일 관료를 몰아내려 서울로 진공 작전을 펼칠 때 머물며 휴식을 취하며 전열을 가다듬던 공간이기도 하였다.

구불구불 험준한 석파령

석파령은 다양한 한자로 표기되어 왔다. '石坡嶺' '石波嶺' '石破嶺' '石岥嶺' '席破嶺' 등의 한자 표현이 보이는데, 석 자는 돌 석石 자와 자리를 펼칠 석席 자 두 글자이고 파 자는 波 破 坡 岥 등 네 글자가 보인다.

신구新舊 고을 원님의 임무 교대식이 고개 정상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때 고개 정상이 아주 협소하여 자리(席)를 둘로 쪼개어서(破) 이루어졌기 때문에 석파령席破嶺이라 부른





당림리 당숲마을 이정표와 덕두원 봄내길3코스 석파령너미길 팻말

다고 한다. 그러나 고을 원님의 임무 교대식이 왜 고개 정상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반면 석파령의 두 번째 글자인 파 자에는 주름진 동물 가죽을 뜻하는 '皮피' 자가 모두 들어 있다. 이는 고개가 가죽 주름처럼 몹시 구불구불하여 험하다는 뜻을 반영한 것이다. 여기에 석石은 셋을 뜻하는 삼악산三岳山의 삼三의 훈訓(뜻)인 '석 삼'의 '석'을 음차한 것은 아닐까? 즉 석파령이란 몹시 구불구불하며 험한 삼악산에 있는 고개란 뜻이 된다.

또한 석파령의 대대적인 정비사업과 관련 지어 설명할 수 있다. 석파령은 돌과 바위가 많을 뿐 아니라 좁아서 매우 넘기 힘들고 험한 고개였다. 이 때문에 1558년 우두사의 중 지희智熙가 돌과 바위를 깨고 펴서 고개를 수선하였고, 1647년 춘천부사 엄황이 거듭 평탄 작업을 하고 비를 세워 기념했다고 문헌에 전해진다. 돌과 바위를 깨뜨리고 펴서 이루어진 고개라는 뜻이 반영되어 '席破嶺' '石破嶺'으로 표기된 것으로 이해된다.

당림리와 덕두원 두 마을을 이어준 석파령

당림리에서 석파령을 넘으면 덕두원이다. 덕두원에는 당림리에서 시집 온 할머니가 살았는데, 지난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올봄에 대전으로 이사 가셨다고 한다. 그 할머니는 당림리 민 씨 할머니로 60년 전에 덕두원으로 시집을 갔고, 당림초등학교 앞 가게 할머니의 사촌 동생이라고 한다. 고개를 사이에 두고 혼인이 자주는 아니지만 여러 번 있었다고 한다. 두 마을에서는 한 해 농사가 끝나 갈 즈음에 두 마을 남정네들은 날짜를 정하여 석파령 정상에서 술과 음식을 가지고 와서 우의를 다지기도 했다.

차로 통행할 수 있는 큰길이나 터널이 뚫리기 이전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는 주요한 통로는 고개였다. 고려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이 천 년 넘게 사연을 지니고 석파령을 사이에 두고 당림리와 덕두원을 오갔다. 석파령이 당림리와 덕두원 두 마을을 이어주던 모습은 멈추었지만, 봄내길 3코스인 '석파령너미길'이 만들어져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 10월 어느날 가을의 한복판에서 당림리와 덕두원에 얽힌 이야기를 떠올리며 석파령 옛길에서 단풍으로 물들어 가는 만산홍엽의 계절을 만끽하면 어떻겠는가!

글 허준구 사진 춘천학연구소

문학박사. 춘천학연구소 소장. 일찍이 춘천학에 관심을 갖고 춘천의 역사와 문화에 집중해 왔다. 특히 천혜의 춘천 자연환경에 문화와 역사의 색을 입히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심리툰과 함께 내 마음 바라보기

봄 마음 내 마음



팔호광장 @palhosquare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심리툰 작가

제10화 어떤 불안

1

모든 문제에 대해 남을 탓하다 보면,
내가 가진 문제를 깨닫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2

그렇다고 모든 일을 자신을 탓하면서 자책한다면,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음에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3

내가 하고 싶은 일과 해야만 하는 일,
남을 위한 희생과 나를 위한 시간,
삶의 고민들은 늘 비틀비틀
중심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그런
균형이 가져다주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불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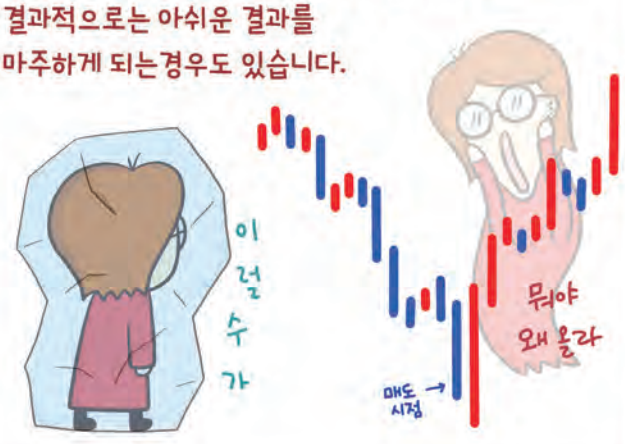
4

우리는 확실하지 않은 상태를 싫어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보다는
확정된 실패를 선호하기도 합니다.
포기하면 편하다는 말처럼요.



5

하지만 불안을 피하기 위한 결정을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아쉬운 결과를
마주하게 되는경우도 있습니다.



6

어느 쪽도 답이 아닌 것 같은 문제들
사이에서 고민하고 계신가요?



어쩌면 당신은 포기하지 않고
그 둘 사이의 균형을 찾으려는 불안을,
용기를 선택하신 것이 아닐까요?

@palhosquare

"장마와 태풍이 오면 두려운 김미정 님에게 안전한 보금자리을 만들어주세요"

김미정(가명 · 만 68세)님은 2년 전 배우자와 사별 후 혼자서 우울감으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계속된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 누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집안 곳곳에 비가 새어 벽을 타고 흐르고 있어 전기합선의 위험이 큰 상황입니다. 우기마다 임시방편으로 바구니로 비를 받아 버리고 있으나 장마와 태풍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김미정님은 수급자로 지붕을 수리하는 데에 드는 500만원을 마련하기에는 힘든 상황입니다. 더 이상 큰 침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김미정님에게 안전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세요.

대 상 자 김미정(가명 · 만 68세)
모금기간 2022. 10. 1.~ 31.(1개월)
목표금액 500만원(주거수리비)
모금계좌 농협 203-01-548843
신한 100-035-191184
예금주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강원도지회
입금방법 후원ㅇㅇㅇ(후원자 성명)
후원문의 시 복지정책과 ☎250-3496

행복나눔 후원릴레이 70호 모금 결과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 70번째 대상자 노지훈(가명·만 67세) 님에게 생계비 500만원을 전달했습니다.
모금에 동참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春1000인 천원나눔 범시민 운동 참여 안내

■ **『春1000인 천원나눔』 범시민 운동이란?**
매월 천원의 작은 금액을 기부하여 어려운 이웃을 돕는 범시민 운동입니다.
■ **후원금액은? 1인 매월 1,000원부터**
■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춘천인천원 나눔_ 춘천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세제혜택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은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244-1662)로 필히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소식



■ 제320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개최

춘천시의회(의장 김진호)는 제11대 춘천시의회의 첫 번째 정례회인 제320회 정례회를 9월 1일부터 9월 26일까지 26일간 열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1회계연도 세입 ·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2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을 포함한 총 15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제321회 임시회 기간 안내 2022. 10. 21 ~ 11. 1.(예정)

■ 개회사 요약

춘천시의회 소식은 춘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chuncheon.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김진호 의장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제320회 정례회를 시작으로 앞으로의 4년간의 여정이 본격적으로 출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춘천시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한 조례안과 결산 승인안, 제2회 추경안 그리고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됩니다. 춘천시민의 행복을 결정짓는 역사의 일부로 기록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매 순간 진실하고 성실한 자세로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자전거의 두 바퀴와도 같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그대로 담아내는 의정활동과 이를 정확하게 추진하는 정책 집행이 바로 시민의 행복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는 두 바퀴라 생각하면서 의회와 집행부는 항상 협력하며 준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울러 시민 의식과 참여 욕구가 높아지고 다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 시민의 생각을 발 빠르게 반영하는 자치입법 활동과 그것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화는 자전거가 힘차고 부드럽게 나아갈 수 있는 훌륭한 윤활유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일은 근본에 따라 거기에 걸맞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이번 정례회가 향후 4년의 근본이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행복의 곡식이 풍성하게 열릴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 요약



윤민섭 의원

춘천시 인사청문제도 도입 요구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장의 인선 시기가 되면 가장 우려되는 것이 보은 인사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 훼손입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진행된 첫 산하기관장 채용 확인 결과, 자격요건 중 "경력요건"이 아닌 "특별히 임명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채용을 진행하였으나 그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경력보단 임용권자의 권한을 과도하게 남용했다고 판단됩니다. 지난 8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이 논의되어 집행부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집행부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춘천시의 선도적인 인사청문제도 도입으로 도내 타 지자체를 이끌어 가길 희망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춘천시 행정을 위한 시장님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권희영 의원

월송2리 축사 신축 반대 민원 관련

월송2리의 축사 신축의 가장 큰 반대 이유는 월송2리 주민들의 생존권적 기본권 침해 위험입니다. 이곳은 지형도상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고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축사 신축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춘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제한구역 조건에서 규정되지 않은 5호 미만의 가구는 어떻게 보호받아야 합니까? 이 문제의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 현 조례 체제상 법적 사각지대인 5호 미만 가구의 권리 보장을 위해 춘천시의회는 연구 논의하여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가축분뇨 관리 및 처리시설의 관리 강화 의무로 축산농가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처리 지원 확대를 집행부에 부탁드리며, 지역 내 가축분뇨 처리 문제, 지역 농가 무료 퇴비 공급, 바이오에너지로의 자원순환 등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건립 추진을 제안합니다. 본의원도 반복적인 갈등 문제가 해결되도록 연구하고 조례를 발의해 사회적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보건 의원

공무원 조직의 다양성 제언

민주사회란 다양성을 전제하는 사회입니다. 획일화된 조직에서는 발전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미국계 다국적 투자은행인 골드만 삭스(Goldman Sachs)에서는 다양성이 결여된 기업의 주식 상장은 맡지 않을 것이라며 다양성에 주목하였습니다.

춘천시 고위공무원 구성에 대하여 다양성을 분석하여 조직 배분이 균형 잡히지 않았다면, 민선 8기 조직개편과 인사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님은 2022년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6%이나, 춘천시 고위공무원 100여 명 중 장애인은 몇 명인지 아시나요? 동등한 경쟁에서 사회적 약자가, 중증장애인이 앞서 나가지 못하는 현실을 이해하고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직안의 다양한 가치관과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만드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민선 8기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으로 제언합니다.

■ 현안과 이슈

기후 위기 대응 관련 조례안 마련 간담회



춘천시의회는 '춘천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제정을 위해 집행부, 시민사회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자치법규 입안에 앞서 사전 준비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해서 열렸다.

주요 내용은 지역 차원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 구성과 탄소중립 비전 정립이며, 선언적인 의미만을 담은 조례안이 아닌 기후 위기와 녹색성장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이 담길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계속 수렴해 가기로 했다.

춘천시 현안 보고회



춘천시의회는 제11대 의회 처음으로 전체 의원과 시 집행부가 현안에 대해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대중교통 마스터플랜 중간보고회 및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관련하여 집행부 등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의 순서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선과 공영제, 교통수요 예측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으며, 춘천시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선도도시이자 중심도시로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전략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교환했다.

■ 제11대 춘천시의회 의원 연구회 구성

춘천시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3개의 연구회는 주요 시책 및 지역개발 등 특정 분야에 대해 공동 연구 활동을 목적으로 하며, 2025년 12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연구회명		향토문화탐방 연구회	춘천 자치의정 연구회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 발굴 연구회
구성목적		향토역사 문화의 재조명 및 보존과 정체성 확립	춘천시의회의 자치역량 강화와 실효성 있는 입법 연구	시민참여와 소통으로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명단	인원	7명	8명	6명
	회장	김용갑	신성열	박제철
	회원	김보건, 유홍규, 유환규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권주상, 권희영, 김지숙 나유경, 박남수, 윤민섭, 정재예	김영배, 남숙희, 박노일 배숙경, 지승민

■ 의정활동 이모저모

2022. 9. 1.



춘천시 아동참여단 학생 13명은 춘천시의회를 견학하고 제32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방청했다.

2022. 9. 1. ~ 22.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희자)는 소관 안건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2022. 9. 5.



춘천시의회는 추석 명절을 맞아 관내 복지시설 24개소에 위문품을 전달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2022. 9. 7.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정경옥)는 시정질문 관련 협의 및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안을 심사했다.

2022. 9. 1. ~ 22.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보건)는 현장확인 및 소관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2022. 9. 1. ~ 22.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김운기)는 소관 안건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2022. 9. 7.



춘천시의회는 추석 명절을 맞아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실시했다.

2022. 9. 7. ~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유홍규)는 결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추경안 등을 심사했다.

봄내골 소식

함께해서 행복한 봄내골 소식을 전합니다.
지면 사정상 들어가지 못한 봄내골 소식 사진은
봄내 홈페이지(bomnae.chuncheon.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나눔후원

• **새춘천로타리클럽(회장 윤진원)**과 **한림대 한림로타랙트(회장 강동연)**는 8월 11일 교동 행정복지센터에 코로나 방역키트 100상자를 전달했다.



• **신북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신림)**는 8월 11일 저소득 독거노인 40가구에 반찬 및 푸드뱅크 식품 전달 봉사를 했다.

• **강남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옥희)**는 8월 11일 33가구에 직접 만든 반찬을 전달했다.

• **근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박근홍)**는 8월 12일 말복을 맞아 삼계탕을 저소득 40가구에 전달했다.



• **후평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박정임)**는 8월 17일 28가구에 반찬을 전달, 안부를 확인했다.

• **약사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신진태)**는 8월 17일 '찾아가는 이웃돌봄 반찬봉사'와 보문각(대표 김선미)에서 후원한 도시락을 34가구에게 전달했다.

• **후평2동 바르게살기위원회(위원장 최경숙)**는 8월 17일 동부노인복지관에서 급식 배식 봉사를 했다.

• **교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박남숙)**는 8월 23일 福나누미 냉장고 반찬과 티라미수(대표 권강현)와 직접 만든 카스테라를 30가구에 전달했다.

• **석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최형화)**는 8월 17일 석사동 기부장터 수익금으로 실버카 18대를 전달하였다.



• **신사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승규)**는 8월 24일 취약계층 20가구에 밑반찬 전달 및 안부 확인을 했다.

• **소양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선희)**는 8월 24일 홀로 사는 장년가구에 식료품 꾸러미 전달 및 안부를 확인했다.



• **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단장 박근순)**는 8월 24일 독거노인 등 80가구에 반찬을 전달했다.

• **보타사 관음손 봉사단(단장 양영석, 주지 진철스님)**은 8월 25일 독거어르신 및 중증장애인 38가구에 반찬을 전달했다.

• **레고랜드코리아(주)**는 8월 25일 양곡(10kg) 50포를 근화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 **퇴계동 지역사회봉사단(단장 김혜옥)**은 8월 26일 불우한 독거노인15가구에 반찬을 전달했다.

• **후평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박정임)**는 8월 26일 독거어르신 2가구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하였다.

• **(사)춘천이웃(회장 김희두) 회원 20명**은 8월 28일 소양동 독거노인에 연탄 500장(33만원 상당)을 배달, 안부를 확인했다.



• **춘천 평생학습관 '카페디저트' 강좌반**은 8월 29일 머핀 100개를 교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박남숙)에 전달했다.

• **신북읍 심우정사(최용순 스님)**는 8월 29일 양곡(10kg) 50포를 신북읍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 **춘천북부노인복지관(관장 박재호)**은 8월 30일, 31일 소양동 홀몸 어르신 12가구 이불 세탁 봉사를 실시했다.

• **신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신경순)**는 8월 30일 취약계층 36가구에 이불 전달, 2가구에 현관방충망을 설치했다.



• **신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신경순)**는 8월 30일 취약계층 22가구에 반찬과 수제 컵케이크(티라미수 후원) 및 곰탕(전주장작불곰탕 후원)을 전달했다.

• **춘천시산림조합(전무 임동일)**은 8월 31일 후평2동 행정복지센터에 후원물품(라면 20박스)을 전달했다.

•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충인교회(담임목사 이종규)**는 8월 31일 후평2동 행정복지센터에 김치 50통을 전달했다.



• **동내면 새마을부녀회(회장 문교순)**는 9월 1일 저소득층 가정에 송편과 불고기 등을 지원했다.

• **북춘천새마을금고(이사장 김선호)**는 9월 1일 신사우동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라면 74박스를 후원했다.



• **후평2동 새마을부녀회(회장 이순분)**는 9월 1일 추석맞이 반찬(불고기와 송편 10팩)을 전달했다.

• **근화동 새마을부녀회(회장 최영애)**는 9월 1일 관내 홀몸노인 10가구에 송편, 불고기 등 음식나눔 봉사활동을 했다.

• **신사우동 새마을부녀회(회장 유수분)**는 9월 1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10가구에 소불고기와 송편을 후원했다.

• **춘천성광교회(조용아 목사)**는 석사동 저소득층에 춘천사랑상품권 200만원(1만원권 200매)을 기부했다.



• **소양동 새마을부녀회(회장 신영자)**는 9월 1일 홀몸어르신 10가구에 송편 및 소불고기를 전달했다.

• **석사동 새마을부녀회**는 9월 1일 관내 저소득층에 도시락 10세트를 후원했다.

• **석사감리교회**는 9월 2일 석사동 저소득층에 양곡 10kg 30포를 기부하였다.



• **신사우동 성문군인교회(목사 안재균)**는 9월 4일 취약계층 22가구에 쌀과 라면을 후원했다.



• **춘천에너지(대표 박도산)**는 9월 1일 쌀 120포(10kg,3백만원 상당)를 동산면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 **새마을문고 작은도서관 춘천시지부**는 9월 5일 친환경 주방비누 50개를 근화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 **효자1동 복지위원회(위원장 박인호)**는 9월 5일 저소득층 15가구에 라면과 참치 세트를 기탁했다.

• **사단법인 국제위러브유운동본부(대표자 이강민)**는 9월 5일 식료품세트를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 **명품한우한돈도매센터(대표 장윤진)**는 9월 5일 소고기 10kg을 교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박남숙)에 전달했다.



• **퇴계동 새마을협의회(회장 함순천)**는 9월 5일 폐건전기 수거사업 수익금 100만원을 퇴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염현섭)에 기탁했다.



• **남산면 번영회(회장 이만동)**는 9월 5일 수해피해가구(5가구)를 위해 18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다.



• **춘천은하수교회(목사 윤호영)**는 9월 5일 쌀 40포 및 라면 40상자를 동면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기부했다.



• **한국수력원자력 한강수력본부(본부장 정헌철)**는 9월 5일 서면 발전소 주변(서상리등 4개마을) 취약계층에 명절 선물 69세트를 전달했다.

• **춘천남부새마을금고**는 9월 6일 석사동 및 퇴계동행정복지센터에 백미 10kg 230포(8백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 **조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회장 노석호)**는 9월 6일 홀몸어르신 22가구에 식료품(송편,식혜)을 전달했다.



• **교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박남숙)**는 9월 6일 '福 나누미 냉장고' 봉사활동을 했다.

• **근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박근홍)**는 9월 6일 전과 송편을 저소득 40가구에 전달했다.

• **동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곽진수)**는 9월 6일 55가구에 햅쌀을 지원했다.

• **퇴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염현섭)**는 9월 6일 저소득 독거노인 20가구에 명절 음식을 전달했다.

• **약사명동 소재 MG춘천중부 새마을금고(이사장 최철희), NH농협은행 강원영업부(부장 박종범), 춘천중앙성결교회(담임목사 장기동), 보문각(대표 김선미)**은 9월 7일 후원품을 전달했다.



• **춘천중부새마을금고(이사장 최철희)**는 9월 7일 강남동 행정복지센터에 쌀 4kg 35포(80만원 상당)를 후원했다.



• **후평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박정임)**는 9월 7일 저소득 홀몸 어르신과 취약계층 65가구에 김치와 반찬을 전달했다.

• **강남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옥희)**는 9월 7일 독거 어르신 및 중증 장애인 33가구에 직접 만든 음식을 전달했다.

• **서면 안보리 원각사**에서는 9월 7일 독거노인을 위한 쌀 10kg 15포를 서면행정복지센터에 기부했다.

• **소양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선희)**는 9월 7일 소외계층 40가구에 소불고기, 송편(10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

• **한전KDN(주)강원사업처(사장 김장현)**는 9월 7일 40가구에 쌀과 과일을 후원했다.



• **후평2동 바르게살기위원회(위원장 최경숙)**는 9월 7일 동부노인복지관에서 급식 배식봉사를 실시했다.

• **효자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광순)**는 9월7일 홀몸 어르신 66명에게 햅쌀 (4kg 66포)을 전달했다.



• **춘천 제일라이온스클럽(회장 최윤찬)**은 9월 7일 퇴계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양곡 120kg을 전달했다.

• **석사동 두산아파트 홍광기 주민**은 매년 말복에 두산아파트 관리사무소 전 직원에게 30여만원 상당의 삼계탕을 5년 넘도록 대접하고 있다.

• **홈케어 업체 파워클린(대표 김봉철)**은 후평2동 취약계층 홀몸어르신 댁 청소 및 소독 봉사를 실시했다.



• **후평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박정임)**는 현수막 장바구니와 이불, 옷가지 등을 세탁하여 전달했다.

• **이모네불막창(대표 이혜원)**은 9월 5일 취약계층을 위한 컵라면 100상자(48만원 상당)를 후평3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 **(주)시온건설개발(전무이사 정익수)**은 9월13일 '2022 세대공감 나눔릴레이'에 동참, 근화동행정복지센터에 후원금 50만원을 전달했다.



행 사

• **'2022 세대공감 나눔릴레이 캠페인'**의 오프라인 모금 전달식이 8월 25일 소양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렸다.

• **신사우동 주민자치회(회장 신영길)**는 8월 12일 기관장 및 단체장을 초청해 〈다같이돌자~동네 한바퀴!〉를 진행했다.

• **수제케이크 전문점 티라미슈(대표 권강현)**는 **교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박남숙)**와 8월 17일 매월 빵 후원 협약을 했다.

• **후평3동 마을복지계획단(단장 신장순)**은 8월 19일 주민총회를 열어 마을복지계획(요리고리)을 선포했다.



• **후평2동 마을복지계획단(단장 박정임)**은 8월 22일 후평일단지시장에서 3차 주민투표를 실시했다.

• **석사동 통장협의회(회장 허원영)**는 8월 25일 석사동 애막골, 스무숲 등에서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 캠페인'을 전개했다.

• **후평2동 바르게살기위원회(위원장 최경숙)**는 8월 25일 부안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거리 캠페인을 실시했다.

• **교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춘옥)**는 8월 29일 교동 제2경로당(회장 김영태)을 방문, 찾아가는 경로당 건강프로그램 2회차를 진행했다.

• **동산면 마을복지계획단**은 마을복지계획 사업선포식 및 주민공유회를 8월 29일 월드비전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진행했다.



• **석사동(동장 김희상)**은 8월 29일 춘천효자종합사회복지관과 〈마음돌봄카페〉, 〈마음공부방〉 마을복지계획 주민선포식을 진행했다.

• **후평2동 마을복지계획단(단장 박정임)**은 9월 1일 후평2동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선포식을 가졌다.

• **석사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희상)**은 9월 1일 베니키아 춘천베어스호텔에서 춘천효자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마을복지활동가 발대식을 진행했다.

• **동내면 이장단협의회(회장 문덕기)**는 9월 2일 추석을 맞아 관내 주요 도로변 제초작업 및 환경정비를 실시했다.



• **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박근순)**는 9월 1일 2022 춘천시 자원봉사 릴레이 동참을 위해 환경정화봉사를 실시했다.

• **강남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옥희)**는 9월 2일 풍물시장에서 폐현수막 장바구니(250장) 나눔 행사를 했다.

• **동산면 새마을부녀회(회장 박향경)**는 9월 2일 인정의 탑 공원 일대에서 관내 기관, 단체들과 추석맞이 풀깎기작업을 실시했다.



• **신북읍은 소양강효나눔복지센터(센터장 허미숙)**와 9월 6일 신북읍 마을복지계획단 주민선포식을 개최했다.



• **춘천원예농협(조합장 김찬호)**과 **신사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승규)**는 9월 6일 선한이웃나눔 후원 협약식(과일후원)을 했다.



• **'2022 세대공감 나눔릴레이 캠페인'**의 모금 전달식이 9월 6일 후평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렸다.

• **소양동 자원봉사단(단장 이관선)**은 춘천시 자원봉사릴레이의 일환으로 9월 13일 플라스틱(PE·PP) 분리수거 활동을 했다.

알림마당

춘천시민에게 유용한 교육, 복지, 행사 정보를 전합니다

시정 정보

■ 생활 속 세금 고민, 마을세무사와 무료 상담

상담내용 각종 세금문제 무료 상담
어려운 주민 누구나 이용 가능

우리동네 마을 세무사 전화 및 방문 상담

시설명	연락처
양종천 세무회계사무소(안마산로 169-11)	264-2237
남은희 세무회계사무소 (퇴계농공로 12, 로얄프라자 404호)	264-1354
김보경 세무회계사무소(중앙로 101, 3층)	256-3331
최민섭 세무사사무소(중앙로124번길 2)	264-4480
이창희 세무회계사무소(춘천로17번길 31, 304호)	911-3344
박상희 세무회계사무소(중앙로 110 다나빌딩 102호)	255-1101

※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을 상담하기 위한 재능 기부로 일부 상담이 제한될 수 있음.

문의 세정과 ☎250-4029

■ 2022년 농촌여성교육 신청 안내

신청대상 춘천시 여성농업인 및 도시여성
(춘천시 주민등록 필수)

신청자격 1순위: 농촌여성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2순위: 도시여성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3순위: 도시여성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및 미래농업과 방문 · 전화 접수

※ 신청서 제출 메일 및 전화: chlgovl@korea.kr / ☎250-3768

세부사항 춘천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교육안내」

문의 미래농업과 농촌자원팀 ☎250-3768

시설명	신청기간	교육기간	횟수 및 신청인원
약선테라피	8. 16. ~ 8. 31.	9. 16. ~ 10. 7.	4회 / 25명
천연조미료	9. 14. ~ 9. 30.	10. 7. ~ 10. 28.	4회 / 25명
원예교육복지사 자격증반	9. 28. ~ 10. 14.	10. 26. ~ 11. 23.	10회 / 15명
정리수납 교육	9. 26. ~ 10. 7.	10. 18. ~ 11. 8.	4회 / 15명
식물재테크교육(난)	9. 26. ~ 10. 7.	10. 13. ~ 11. 3.	4회 / 25명

■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공시일 9. 29.

대상 2022.6.1.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 개별주택 : 373호 ※2022.1.1.~5.31.
토지의분할 · 합병 및 건물 신축 등 사유 발생
– 공동주택 : 1,175호 (춘천센트럴타워푸르지오)

이의신청 – 기 간 : 9. 29. ~ 10. 28.
– 신 청 자 : 공시대상 주택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 접 수 처
* 온 라 인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 오프라인 : 시청 세정과 및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 공동주택 : 한국부동산원 춘천지사

문의 세정과 ☎250-4070, 4069

■ 역사문화자원 스토리텔링행사 안내(애국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사업)

행사명 〈의병장 윤희순 '춘천 윤희순체' 서체 제작기념〉
'안사람 의병가' 손글씨 쓰기 행사

장소 춘천시 의암공원 일대

일정 10. 9.(일) 11:00 ~ 16:00

모집인원 일반시민 300명 내외

내용 '춘천 윤희순체' 서체 홍보 및 '안사람 의병가' 손글씨 쓰기 행사

주관 춘천시, (주)아뜰리에포노마드

문의 시 문화콘텐츠과 ☎250-3488
(주)아뜰리에포노마드 ☎251-8900

■ 폐의약품 처리 방법 안내(가까운 약국에서 처리하세요!)



■ 비만예방관리교실 운영 안내

운영기간 10. 11. ~ 12. 16.(10주 프로그램)
대상 춘천시민, 만 20세 이상 ~ 만 65세 이하 성인 선착순 100명
장소 시민건강증진센터(중앙로 135, 보건소별관)
내용 10주 프로그램 : 매주 2회 참석 (교육1회, 개인운동 1회) – 체중관리 / 영양·운동 교육 / 건강상태 검사 / 참여자에게 활동량계지급, 사전 검사일자와 반편성은 접수자 순으로 개별 연락
신청기간 9. 1. ~ 대상자 100명 선정 완료 시까지
신청방법 https://naver.me/5qAb5aP3 접수(전화 접수 불가)
문의 시민건강증진센터 ☎250-3476 / 4695

■ 소양에너지페이 신청 안내

신청대상 자가소비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운영하고 있거나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시민
지급방법 모바일 앱(착한페이)을 통한 지급 ⇒ 관내 가맹점에서 사용
신청방법 시청 기후에너지과 방문 신청(상시접수)
문의 기후에너지과 ☎250-4079

※ 가맹점 상시 모집 중(소상공인 운영 업소) / 모바일 앱(착한페이)으로 신청

신 ·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태양광 2만원/kW, 태양열 4,400원/㎡ 지열 1만2,000원/kW
환경친화적 자동차	수소전기차 5만원/대, 전기차 5만원/대 전기이륜차 2만원/대

※ 연 1회 총 5년간 지급

■ 상속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안내

상속 이전 안내	자동차 소유자중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자동차를 『자동차등록령』 제26조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 이전등록 하여야 합니다.
필요 사항	☐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기본증명서(상세) 각 1부 – 주민등록번호 공개 발급/사망 신고 후 발급 ☐ 상속권자의 상속협의(포기)서 1부 – 상속포기인 각각 신분증 사본 첨부, 상속포기서에 도장 날인 ☐ 자동차단독책임의무보험가입(피보험자: 상속인) ☐ 상속인 직접 방문시: 신분증 지참
문의	차량등록사업소 ☎245-5258

■ 2022년 자산형성지원사업 모집 안내

희망저축계좌 I	· 신청기간 : 10. 4. ~ 12. · 모집대상 :생계 · 의료급여 가구 중 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지원내용 : 매월 10만원 저축 시 근로장려금 30만원 지원
희망저축계좌 II	· 신청기간 : 10. 4. ~ 13. · 모집대상 :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 · 지원내용 : 매월 10만원 저축 시 근로장려금 10만원 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 복지지원과 ☎250-3379

■ 2022년 시민과 함께하는 건강나눔터 행사 (건강마을로 여행하기 좋은 날)

일정 10. 15.(토) 13:00 ~ 17:00, 춘천시청 호반광장
대상 지역 주민
내용 시민 누구나 보고, 듣고, 먹고, 즐길 수 있는 부스 구성, 6개 구역(ZONE) 운영
문의 시민건강증진센터 ☎250-4693

■ 수도계량기 보온재 보급 안내

신청대상 15~ 25mm 구경 타원형 보호통(아파트, 빌라, 연립 등의 벽체형 수도계량기 함 제외)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후 배부 일시에 수령 (신청 순으로 배부,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신청기간 10. 10. ~ 10. 28.(3주간), 배부 11. 1. ~ 4.
문의 상하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과 ☎250-3443

※ 구경 자가진단 방법 :15mm(가로 폭 47cm), 20-25mm(가로 폭 59cm)

■ 2022년 하반기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신청 안내

일시 9. 28.(수) ~ 예산 소진시까지
대상 관내 길고양이 300마리
내용 신청 → 포획(단체) → 중성화(동물병원) → 방사(단체)
문의 반려동물산업과 ☎245-5350,
강남종합동물병원 ☎010-2695-5350,
고려동물병원 ☎010-4893-6604

■ 2022-2023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사업대상 및 사업기간

구분		사업기간
어린이 생후 6개월 ~ 만13세 '09.1.1. ~ '22.8.31. 출생	2회 접종 대상자	2022. 9. 21.(수) ~ 2023. 4. 30.(일)
	1회 접종 대상자	2022. 10. 5.(수) ~ 2023. 4. 30.(일)
임산부	–	2022. 10. 5.(수) ~ 2023. 4. 30.(일)
어르신	만 75세 이상 (1947.12.31 이전 출생자)	2022. 10. 12.(수) ~ 2022. 12. 31.(토)
	만 70~74세 (1948.1.1.~1952.12.31.)	2022. 10. 17.(월) ~ 2022. 12. 31.(토)
	만 65~69세 (1953.1.1.~1957.12.31.)	2022. 10. 20.(목) ~ 2022. 12. 31.(토)

접종백신 인플루엔자 4가 백신 / 무료 접종
접종기관 위탁의료기관 107개소
– 보건소 홈페이지,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https://nip.kdca.go.kr 확인 가능
문의 ☎250–4641, 4602~3 / 245–5541

도서관

■ 신사우도서관 <'우리동네서(書)'에 전시할 도서 모집>

지역작가와 지역출판사 도서로 함께 책 읽는 기쁨을 나누고자 합니다.

장소	신사우도서관 2층 자료실 '우리동네서(書)' 코너
내용	월별 신간 도서 및 작가(스토리)소개
전시도서 선정기준	– 관내 살고 있는 작가 혹은 출판사에서 출간된 도서 – 출판일 기준으로 1년 이내 출간된 도서(ISBN필수) –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순수창작물
전시도서 신청	– 도서정보(서명, 저자, 출판사) 제출 – 이메일: lyb2062@korea.kr
문의	신사우도서관 ☎ 245–5132

■ 소양도서관 10월 영화음악회 개최

일시 10. 6.(목) 15:00~16:00
장소 소양도서관 야외정원(우천시 시청각실/대면)
대상 춘천시민(일반 및 청소년)
인원 30여명
내용 시민과 함께하는 영화 OST 현악4중주(8곡 내외)
도서관에서 영화와 음악을 함께 즐기는 기회 제공

■ 춘천시립도서관 프로그램 안내

1. 도서관 어울림마당

일시대상 10. 15.(토) 10:00~17:00, 전 연령(5세 이상)
내용 책 관련 체험, 공연, 다독왕 시상식 등

2. 문화행사

프로그램	일시	대상
장난감으로 배우는 영어	10. 22.(토) 14:00~15:00	유아
그림책 놀이터	10. 22.(토) 11:00~12:00	
그림책과 함께하는 안심먹거리체험단	11. 5.(토) 14:00~16:00	
모두의 레고, 레츠고!	10. 15.(토) 11:00~12:00	초등
도전! 세계 문화 탐험대	10. 15.(토) 14:00~16:00	
온작품 깊이 읽기	11월 매주 토 10:00~12:00	
북콘서트 〈불편한 편의점〉 김호연 작가	10. 23.(일) 14:00~15:00	청소년 ~성인
인문학 강좌(춘천 옛이야기)	10월 매주 목 19:00~21:00	성인
영화 포스터 제작	10. 4. /11. /18.(화) 10:00~12:00	
나만의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만들기	10. 4. / 18.(화) 14:00~16:00	
부모성장 아카데미	11.5.(토) 10:00~12:00	
힐링 앤 무비	10. 2. / 16. / 30.(일) 15:00~17:00	가족
가족과 함께하는 도서관 Day	10. 22.(토) 13:30~15:00	
작가와의 만남 권오준 작가	10. 22.(토) 14:00~16:00	

접수 도서관 홈페이지 → 문화마당 → 문화행사 신청
문의 ☎245–5109, 5110, 5069

3. 장애인 대상 서비스

북스타트 장애인 택배서비스	– 대상: 춘천시 거주 장애인(유아~청소년) – 신청방법: 도서관 홈페이지 → 이용자 마당 → 북스타트 장애인 택배서비스 신청 – 인원: 300명 제한(선착순)
책나래 서비스	– 대상: 보건복지부 등록 장애인, 국가보훈처 등록 국가유공상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정 장기요양 대상자 – 신청방법: 도서관 홈페이지 → 이용자 마당 → 책나래 사이트 이동 → 거주지역 내 도서관, 책나래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이용 – 대상도서관: 시립, 시립청소년, 신사우, 남산 도서관, 책바다와 연계하여 전국 책바다 참여 도서관의 자료 이용 가능

■ 춘천시립청소년도서관

1. 미디어창작실 1일 체험

대상일시 시민, 10. 15.(토), 22.(토) 15:00~17:00
장소 시립청소년도서관 1층 로비
내용 미디어창작실 장비와 활용방법을 크리에이터 1일 체험을 통해 안내
모집인원 각 12명(선착순 마감)
신청방법 홈페이지 접수
문의 ☎245-5762

2. 미디어창작실 프로그램 실습

대상일시 시민, 10. 16.(일), 23.(일) 15:00~17:00
장소 시립청소년도서관 미디어창작실 및 강의실
내용 미디어창작실 내 OBS프로그램 실습
모집인원 각 5명(선착순 마감)
신청방법 홈페이지 접수
문의 ☎245-5762

3. 스마트폰 영상제작

대상 시니어(만 55세 이상)
일시 10. 5.(수), 12.(수) 14:00~17:00
장소 시립청소년도서관 강의실
내용 스마트폰 카메라의 구도 익히기, 키네마스터 프로그램으로 사진 슬라이드쇼 영상 제작
모집인원 7명(선착순 마감)
신청방법 홈페이지 접수
문의 ☎245-5762
※ 자세한 사항은 시립공공도서관 홈페이지 참조

■ 서면도서관 11월 <길따라 이야기따라> 신청 안내

일시 11.12.(토) 10:00~12:00
대상 춘천시민(성인 10명)
내용 선정도서를 읽고 문화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서면 탐방코스 걷기
신청기간 10.11.(화) 10:00부터 선착순 마감
신청방법 도서관 홈페이지 → 문화마당 → 문화행사 신청
강의방법 대면 강좌
문의 ☎245-5173 ※ 탐방코스 안내: 도서관 홈페이지

모 집

■ 춘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가정양육 교육프로그램

홈페이지 www.cchildcare.or.kr
문의 ☎241-0756

교육과정		신청 대상 및 일시	
부모 자녀 체험	[키즈 플라워] 피카추 꽃 바구니	2016, 2017년생 자녀와 부모 10. 6.(목) 15:00~17:30	
	[뚝딱 탐구놀이] 요리 쿡	2016, 2017년생 자녀와 부모 10. 8(토) 10:00~13:00	
	우리 동네가 좋아요	영아 자녀와 부모 10. 29(토) 13:30~15:00	
	정직빵	유아 자녀와 부모 10. 29(토) 15:30~17:00	
부모 교육	아빠 육아 대장	[2차]10.1(토) 10:30~12:30 [3차]10.5(수) 19:30~21:00 [4차]10.8(토) 13:30~15:40	영유아 자녀의 부
	양육스트레스 – 함께하는 육아의 어려움	10. 11(화) 10:00~12:00 10. 18(화) 10:00~12:00 10. 25(화) 10:00~12:00	영유아 자녀의 부모
	클러버 부모교육 아름다운 이웃	10. 27(목) 10:00~14:3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 농업일자리 탐색교육(4일과정) 교육생 모집

교육목적 농업분야 취 · 창업희망자를 지원하기 위한 현장실습 교육 제공 및 일자리 연계
교육내용 이론교육(3일) 및 일자리탐색 및 현장실습(1일)
교육일정 10. 25.(화) ~10. 28.(금), 32시간(4일)
교육장소 강원대학교 친환경농업연구센터 501호
모집기간 10. 4.(화)~10. 21.(금)
신청방법 귀농귀촌센터 홈페이지 참조 www.returnfarm.com
문의 강원농업마이스터대학 ☎250-7238

■ ICT이노베이션스퀘어확산사업 비전공자대상 개발자 특강 4탄

주제 미래에 필요한 역량, 기업가 정신 키우기
강사 김승환교수(평택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센터장)
일시 10. 6.(목) 14시 00분 ~ 15시 30분
장소 강원콘텐츠코리아랩 1층 아이디어카페 1 (춘천시 서면 박사로 854)
신청링크 https://naver.me/5qgqE7pq
문의 ☎010-4827-0903

■ 2023학년도 강원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

대상 올해 초등 4~6학년, 중 1~2학년 재학생
접수기간 10. 17.(월) ~ 21.(금)
입시설명 10. 1.(토) 14시 * 온라인진행(신청링크 홈페이지 참조)
홈페이지 https://gifted.kangwon.ac.kr
문의 ☎250-7090~1

■ AAC 이해교육 참가자 모집

AAC(보완대체의사소통)이란?

말 표현이 어려운 사람들이 그림,상징,의사소통판 등을 사용해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말을 보안하거나 대체하는 것

체험교육 10. 31.(월) 14:00~15:00
11. 25.(금) 16:00~17:00
장소 춘천시청 민방위 교육장
문의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 ☎070-4454-6755

■ 춘천문화재단 시민협의체 봄바람 회원 모집

대상 춘천 문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시민 누구나
내용 춘천 문화 소식 수신, 문화도시 사업 의견 제안, 봄바람 대상 프로그램 참여 등(상시 모집)
신청방법 네이버 카페(cafe.naver.com/ccbombaram) 가입 및 신청서 작성
문의 춘천문화재단 ☎259-5414

■ 춘천여성민우회 <여성주의 영화 보기>

대상 여성주의 영화를 좋아하는 춘천시민
장소 소양도서관(후평동)
영화일정 10. 7.(금) 16시 〈5시부터 7시까지의 클레오〉
(아녜스 바르다 감독, 2003년, 90분)
10. 21.(금) 16시 〈바르다가 사랑한 얼굴들〉
(아녜스 바르다 감독, 2019년, 89분)
문의 ☎255-5557 / 010-2558-8496

■ 우리말 한글사랑 멋글씨 캘리그래피 공모전

응모주제 한글, 한글날, 세종대왕 등 우리말과 한글 관련 주제
응모일정 9. 1.~ 10. 21.
접수방법 (24341)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1인문대학 2호관 309-1호 한국어문화원
문의 강원대학교 한국어문화원 ☎250-8137

■ 2022년 봄내길걷기여행 가을 프로그램

참가신청 www.bomne.co.kr
주최후원 (사)문화커뮤니티금토, 춘천시
문의 ☎251-9363

날짜	모임장소	코 스	소요시간
10. 8.(토) 09:00	서면 문학공원	**의암호나들길(4코스)** 서면문학공원-눈늪나루-성재봉-마을길-오미나루-신매대교-호반산책로-소양2교-근화동 배터-공지천-어린이회관	5시간 (도시락 지참)
10. 15.(토) 08:30	강촌역	**북한강물새길(7코스)** 강촌역-강촌메밀밭-출렁다리(등선교)-옛강촌역-물가마을길-옛백양리역-옛강촌역	2시간
10. 29.(토) 09:00	한림성심대 일송체육관	**장학리 노루목길(8코스)** 한림성심대후문-노루목길입구-쉼터-노루목길정상-산길-도로	2시간
11. 5.(토) 09:00	김유정 문학촌	**실레이야기길(1코스)** 김유정학촌-마을길-실레농원-전망대-산신각-금병의숙-김유정문학촌	3시간

※ 모든 프로그램은 미리 신청하셔야 참여 가능하며 일정과 코스는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가입 안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이란?

사용자·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대상 상시 30인 이하 중소사업장
장점 사용자부담금 지원, 낮은 수수료, 법인세(사업소득세) 절감효과 등
홈페이지 pension.comwel.or.kr/fund
문의 근로복지공단 춘천지사 ☎240-6165

■ 경증장애인 인턴 및 구인사업체 모집

참여대상

(인턴) 강원도에 거주 중인 만 18~49세의 경증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경증장애인
(사업체) 강원도 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체

지원내용

(인턴) 사업체 인턴근무 연계(최저임금 이상 지급)
– 인턴기간(3개월) 종료 후 정규직 전환 검토
(사업체) 인턴 1인당 최대 435만원 지원

문의 강원도일자리재단 ☎256-9686, 8589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모집

대상 만 15~ 69세 구직자(비용 무료)
기간 연중 수시
문의 퍼스트인잡 춘천사무소(로데오사거리)
☎818-2486

1유형	구직촉진수당(최대 300만원) 소득지원 및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2유형	취업활동비용과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자세한 내용은 문의하세요.

■ 2022한복문화주간 『장롱 속 한복 리폼수업 및 한복체험』

일시 10. 17. ~ 23.(7일간) / 무료
장소 우리색동한복연구소(춘천로 310번길 28)
문의 ☎242-3033

■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 안내

호스피스 완화의료란 ?

말기환자의 통증 등 신체 증상을 조절하고 환자와 가족의 심리적·사회적·영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완화의료 전문가가 팀을 이뤄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전인적인 의료활동

서비스종류 입원형, 가정형(가정방문) 호스피스
대상질환 말기암
서비스내용 진료,간호,사회복지,영적돌봄,자원봉사, 사별돌봄, 요법프로그램
상담문의 강원대학교병원 완화의료센터
입원형 ☎258-9060~3, 가정형 ☎258-9395

■ 건설훈련(타일,방수+조적) 정부지원 무료 교육생 모집

교육기간 12. 30.까지
교육시간 월~금(9:00~15:30) / 1일 6시간 / 최대 3개월
교육장소 강원인재개발원(춘천로 209, 2층, 팔호광장 인근)
교육대상 만 15세 이상/건설업 근무이력 가진 자 또는 실업자
신청방법 전화 또는 방문 신청 ☎242-3331
교육과정

과정명	교 육 내 용
타일	욕실, 주방, 베란다, 아트타일 시공법 교육, 자격증 시험 대비 교육
방수+조적 (혼합과정)	시트방수, 아치창문, 벽체쌓기 교육, 자격증 시험 대비 교육

■ 춘천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프로그램 모집

대상 관내 9~24세 학교밖청소년
위치 거두택지길 70(LH행복주택 단지 내) 청소년카페 DREAM
신청방법 8181388.co.kr → 꿈드림공간 → 프로그램 신청
문의 QR스캔 후 카카오채널 [춘천꿈드림] 상담원과 채팅 이용
또는 ☎818-1318

프로그램	진행일시	내용
SW 코딩 스쿨	9. 27.부터 15회기 *상세일정 홈페이지 참고	링비트카를 활용한 코딩기초 및 심화 교실
코딩 자격증반 (COS 2급)	10.12.부터 3주간 매주 수, 목, 금	스크래치를 활용한 코딩 기초 자격증반
컴퓨터 자격증반 (MOS CORE: 파워포인트, 엑셀)	11. 9.부터 3주간 매주 수, 목, 금	오피스 기본 프로그램인 파워포인트와 엑셀 기초 자격증반

※ 상세 일정은 센터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프로그램 상세 사항은 홈페이지 8181388.co.kr → 꿈드림공간 → 공지사항

■ 춘천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무료 건강검진 실시

모집대상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신청기간 상시가능
검사항목 신체계측, 소변검사, 흉부 방사선
신청문의 카톡 '춘천꿈드림' 또는 ☎818-1318

■ 자녀의 미디어 사용 조절 부모교육

대상 자녀의 미디어사용이 걱정되는 보호자
강사 최성애 박사 (에이치디행복연구소)
일시 11. 18.(금) 9:30~12:30
진행방법 온라인
문의접수 강원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250-144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4)

■ 춘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1. '나답게 나아가는 나음' 강연 안내

대상 춘천 시민 누구나
일시 10. 6. 목 15:00~17:00
장소 춘천시청 대회의실
내용 코로나 이후 일상 회복, 이전의 나로 돌아가기
강사 김경일 교수(아주대학교 심리학과)
신청방법 사전 온라인 신청
(https://url.kr/iefq4n 또는 포스터 QR코드 이용)
문의 춘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242-7574

2. '어쩌라고 이게 나야!' 캠페인 안내

대상기간 춘천시민 누구나, 9. 26. ~ 10. 6.
문의 춘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242-7574

구분	기간	내용	장소
오프라인 (체험형 캠페인)	10. 6.(목) 10:00 ~ 17:00	나만의 TEA 만들기, 마음약방, 걱정 인형 만들기, 송판격파 및 물풍선 던지기, 정신건강 홍보 등	춘천시청 광장
온라인 (챌린지 캠페인)	9. 26. ~ 10. 5. (10일간)	– 나만의 힐링 포인트(장소, 취미 등)를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기능을 활용하여 공유 – 필수태그: #춘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나다움 – 20명을 추첨하여 힐링키트 제공 (신체피로회복 물품 + 심리적 스트레스 해소 물품)	SNS (인스타그램)

※ 자세한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https://www.chmhc.org)에서 확인

3. '마음건강주치의' 상담 안내

대상 정신건강 상담이 필요한 춘천시민 누구나
일시 9~12월 매주 월 13:00~17:00
(상담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사전 예약 필수)
장소 춘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내용 전문의 상담에 따른 의료기관 정보안내 등
문의 춘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242-7574

■ 춘천종합사회복지관 사회서비스팀 사업 안내

1.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대상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등급 결정 후 이용가능)
내용 **가사활동지원** : 청소, 식사준비, 세탁 등
신체활동지원 : 개인위생관리, 신체기능유지 등
사회활동지원 :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등
문의 ☎242-0051

2. 아동가족상담센터

대상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내용 **언어치료**: 발음, 조음말, 언어 이해/언어표현, 언어능력 증진을 위한 활동 **미술심리치료**: 미술활동을 통한 감정, 내면세계 표현,기분의 이완과 감정, 스트레스 완화 활동
문의 ☎242-0051

■ 재)춘천지혜의숲 지혜의숲마켓 운영안내

운영시간 월~금 9:00~18:00, 주말 및 공휴일 휴무
매장위치 시청길 12번길 5, 1층 지혜의숲마켓
시니어마켓 건강식품, 연하식품, 지역특산물, 유기농식품, 각종 젓갈, 실버패션, 춘천지역상품, em환경 용품 등
시니어카페 시니어 바리스타가 직접 만든 커피, 꽃차, 단백질 음료 등
문의 ☎251-5080



※ 12월 31일까지 본 쿠폰을 지참하시고 음료를 주문하시면 1+1 해드립니다.

■ 재)춘천지혜의숲 '행정 실무능력 향상 교육' 수강생 모집

모집대상 50세 이상 춘천시민, 20명 모집
(우대사항: 컴퓨터 기초활용이 가능하신 분)
신청기간 9. 26.(화) ~ 10. 14.(금)
신청방법 지혜의숲 홈페이지 www.cc5070.or.kr 참고
교육장소 더조은컴퓨터학원(경춘로 2362 6, 7, 8층)
교육시간 10. 17.(월) ~ 11. 11.(금) / 주 3~4회 오전 진행 예정
문의 ☎070-4240-4180

■ 2022년 무릉마을축제 개최 안내

일시장소 10. 8.(토) 13:00~16:00 무릉공원(퇴계주공2단지 앞)
주최 퇴계동 자생단체협의회
주관 무릉마을축제추진위원회 ☎245-5087

공연	민요, 가요, 기타연주, 라인댄스, 댄스스포츠, 마임공연
체험행사	어르신 미니운동회, 어린이마당(전통놀이), 방송댄스 경연대회, 자전거타기 캠페인, 캘리그라피, 수경재배, 리폼가방만들기
부대행사	마을사진전시회, 시화전, 녹색장터
기타	경품추첨, 효도 · 봉사상 시상

■ 제3회 멸종위기 동식물 페스티벌

일시 10. 14.(금) ~ 10. 16.(일)
장소 강원도 자연환경연구공원(홍천군 북방면 생태공원길 319)
체험행사 AR(증강현실) 멸종위기 동물, 전기버스 타기, 피톤치드 등
만들기행사 텀블러, 나무액자, 핀버튼, 나무연필, 나무목걸이 만들기 등
공연 마술, 버스킹, 비눗방울, 풍선아트, 오카리나 공연 등
전시 멸종위기 식물 · 곤충 사진전, 기후변화 취약 식물 사진전, 살아있는 멸종위기 동식물 전시회
문의 강원도 자연환경연구공원 ☎248-6570



〈부처꽃 핀 소양강 풍경〉 명예시민사진기자 **김영희**

독자와 함께

380호 삼행시

송 경 희

한국인이면 누구나 쉽게 익히고 쓰는 문자
글로벌 세상에서도 점점 더 사랑받고 있는
날 뿌듯하게 만드는 자랑스러운 우리 한글

이 춘 희

한글을 뒤늦게 배우고 나서
글로 나의 생각을 기록하고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날마다 80세에 행복을 느낀다

임 은 경

한 번도 한글을 배운 적 없으셨던 우리 엄마
글자만 보시면 가슴이 두근두근
날 학교에 보내시고 같이 공부하셨네

380호 독자 삼행시 당선자

권영자 김상길 김연숙 김영대 김은경 목영일 박소은 박준혁 박창수 박혜리 송경희 유현미 이금영 이춘희 임은경 장신애 정소예 김창훈 현규진 현대

다음 독자 삼행시의 주제는 '바이오'입니다.

올가을엔 축제가 풍성하네요!

윤미영

축제 도시 춘천에 대한 소개를 자세히 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춘천이 호반의 도시, 막국수 & 닭갈비의 도시인 줄로만 알았는데 시민들을 위한 정말 다양한 축제와 행사가 있더라구요.
춘천커피도시페스타, 명동 등 원도심 상권축제, 강원대학교 백령대동제, 거대한 봄나들거리축제 등등.
올가을엔 춘천에서 열리는 다양한 축제와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섯 살 꼬마의 세계 국기 사랑 이야기

박현경

태풍 힌남노가 비켜 지나간 후 아들과 함께 춘천대첩기념평화공원을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6·25전쟁 참전국들의 국기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콜롬비아와 에티오피아 국기 두 장이 태풍 때문이었는지 땅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춘천시청으로 전화를 걸어서 상황을 설명했더니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수리하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이틀 후 사다리차까지 동원돼서 모든 국기를 교체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올해 일흔여섯의 외할아버지는 수십 년 전 춘천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다섯 살의 손자는 아팠던 국기들이 모두 건강해졌다며 신이 나서 뛰어다닙니다. 뜨끈한 감정이 가슴속에 솟아올랐습니다.



춘천문화재단 감사합니다

김순남

올해도 춘천문화재단의 기획 공연으로 다양한 공연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국립발레단, 포레스텔라, 심청날다 공연을 즐겁게 보고 피아노 리사이틀 공연이 남았습니다.

앞의 공연들이 그랬듯이 남은 공연도 무척 기대가 됩니다.

예술적이면서 대중적인 공연이 함께 섞인 프로그램 덕에 적은 부담으로 행복한 문화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특히 공연장을 찾을 때마다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는 직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춘천문화재단에서 기획하는 다른 공연들도 시간을 내어 즐기려고 합니다.

최근엔 국립오페라단의 '라트라비아타'가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춘천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모두의 살롱 후평'에서 열린 낭만 테라스 공연도 참 좋았습니다. 춘천문화재단의 노력이 더 많이 알려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독자 의견을 보냅니다.

'어바웃타임 중도'



봄내소식지 대표 메일 변경 안내

기존 다음 메일에서 지메일로 변경 되었습니다.
앞으로 **bomnae1993@gmail.com**을 이용해주세요.

시민 여러분의 더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봄내소식지에 원고와 사진을 **매달 10일까지** 메일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당첨되신 분께 원고료를 드립니다.
지면 관계상 원고 내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우편 24264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청 시민소통담당관
이메일 bomnae1993@gmail.com

구분	원고료	응모방법
삼행시	1만원 **(모바일 춘천사랑상품권)**	이름, 핸드폰 번호 **(반드시 본인 명의)**
독자편지, 봄내한컷	3만원	이름, 핸드폰 번호, 계좌번호, 도로명 주소**(반드시 기재)**
우리가족 이야기	5만원	

※ 삼행시, 봄내퀴즈 당첨자에게 제공되는 모바일 춘천사랑상품권은 30일 이내 미등록시 취소됩니다.

봄내 미술관 작가 소개

정춘일

춘천에서 나고 자라 대학을 타지로 진학했다. 타향 생활을 하다 10여 년 전 고향으로 돌아와 신북에 터를 잡았다. 지금도 전국을 무대로 개인전 13회 및 다수의 아트페어에 참여하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정크아티스트로 굳건하게 자리를 잡았다. 작품은 우리나라 국공립 미술관 및 사립 미술관에 다수 소장되어 있으며 지난 9월 상상마당 춘천갤러리 야외에서 개인전을 열어 3m가 넘는 대형작품을 선보였다.





정춘일 〈sunday riding〉 76×73×9㎝, steel, 우레탄도색, 2021년

호수를 따라 연결된 자전거 도로를 달리는 모습을 표현했다.
강바람의 상쾌함과 시원함을 만끽하는 라이더의 일상을 담았다.
단풍이 멋진 가을의 어느 날, 자전거 라이딩은 생각만으로도 행복해진다.

춘천시
City of ChunCheon